

종교

불교

유교제향

기독교

불교

진철승_종교문화연구소 연구위원

파주의 불교 현황

파주는 서울과 개성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 권근도 양도중숙처兩都中宿處라 했다. 동으로 양주, 남으로 고양, 북으로 연천, 서북으로 임진강 너머 개풍, 서남으로 한강 너머 김포와 면하여 있다. 고려 시대에도 파주는 혜음령을 통해 서울로 가는 길목이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중국 사신의 왕래처였다. 이에 파주에는 예로부터 수많은 사찰이 들어섰다. 감악산에만 삼천사三千寺가 있었다고 하며, 『파주읍지』나 『교하읍지』 및 『불교 사찰전서』 등에 의하면 조선시대에도 수십여 사찰이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찰은 조선시대에 폐사되고, 현재는 해방 후나 6 · 25전쟁 이후에 창건된 사찰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파주에는 약 50여 개의 사찰이 있다. 이는 공식 종교(불교) 시설로 등록된 숫자로, 파악되지 않은 사찰이나 암자 및 포교당은 100여 개가 더 되는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미등록 사암寺庵의 대부분은 무당이나 법사가 절의 외형만 갖춘 것이고, 기타 개인 절인 사암도 상당수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통 사찰은 보광사, 검단사, 용암사, 용상사 4개이고, 조계종 소속 사찰은 10여 개, 태고종 소속

사찰은 30여 개이며, 나머지는 기타 종단 소속이거나 무종단 사설 사암들이다. 파주의 대찰인 보광사를 제외하면 조계종 사찰은 빈약하고, 이 지역 교세는 태고종이 우세하다.

파주의 산세는 동쪽에는 감악산(675m), 노고산(401m), 금병산(293m), 팔일봉(464m), 앵무봉(622m)이 남쪽에는 황룡산(135m), 명봉산(248m) 등이 고양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중앙에는 파평산(496m), 봉서산(216m), 월롱산(229m), 박달산(368m) 등이 남쪽으로 가면서 낮게 펼쳐져 있다. 파주의 사찰들은 주로 이들 산록에 위치해 있다.

파주에는 왕릉으로 장릉(인조와 인조비, 탄현면 갈현리), 공릉(예종비 장순왕후), 순릉(성종비 공혜왕후), 영릉(영조의 장자 진종과 비, 조리읍 봉일천리)이 있다. 원으로는 소령원(영조의 모 숙빈 최씨, 광탄면 영장리), 수길원(영조 후궁 정빈 이씨, 광탄면 영장리) 등이 있다. 이외 왕자나 공주 등의 묘도 19기가 산재한다.

또한 파주에는 수많은 재지 사족들의 묘와 신도비가 있는데, 윤관 장군 묘(광탄면 분수리), 황희 정승 묘(탄현면 금승리), 성혼 묘(파주읍 향양리), 신사임당 묘 · 이이 묘(이상 법원읍 동문리), 허준 묘(진동면 하포리, 민통선 이북 소재), 심지원 묘(광탄면 분수리)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파주에 수많은 왕실 능원 및 산묘들이 산재한 것은 매우 특징적이다. 왕실의 능원묘가 자리한 것은 그렇다 해도 사대부 향촌 사족士族들의 세거지가 된 것은 눈여겨볼 만하다. 조선 초에 훈구척신인 파평 윤씨, 덕수 이씨, 청송 심씨, 창녕 성씨 등이 낙향하여 터를 잡고, 이후 여러 사대부 가문이 거주한 것은 파주의 지리적 위치 때문이 아니었나 싶다. 파주는 개성과 서울의 경유지라는 특성으로 인해 여말 선초 이래 사대부들의 향촌 거주지로 각광받았고, 이에 선산이 도처에 자리 잡은 것이다.

이러한 입지 때문에 파주에는 각종 원찰願刹이나 분암墳庵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파주읍지』나 『교하읍지』 등에는 여러 재지사족들의 선산을 지키는 사찰이나 암자들이 십여 개 기록되어 있다. 금승리의 영신암(황희 분암), 능곡의 악암사(성안제), 아가산 하의 조씨 분암, 월롱의 심씨 분암, 교하의 성재암(윤

번), 내포리의 오봉사(함안 조씨), 보현암, 평지암, 연천암, 장명산 삼암 등 10여 개의 분암이 그것이다. 파주 최대 대찰인 보광사는 영조의 친모인 숙빈 최씨의 원찰이다.

이중 현존하는 것은 보광사의 숙빈 최씨 영당[御室閣]과 내포리의 오봉사, 교하의 성재암이다. 조선이 비록 유교적 예교禮敎 국가로 출범하긴 했지만 불교 신앙과 조상숭배의 풍속이 결합해 이처럼 여러 원찰이나 분암이 존재할 수 있었다. 이는 파주 불교의 한 특징이기도 하다. 그러나 조선 중후기 조선 성리학의 정립과 향촌 예치禮治의 심화 과정에서 대부분의 분암은 폐찰된 것으로 보인다.


오봉정사 양고장 독경 장면

이하에서는 파주의 최고 대찰인 보광사를 필두로 하여 남동, 북동, 서, 남의 순으로 주요 사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조계종, 태고종 등 종단 중심으로 살펴볼 수도 있겠으나, 이는 그다지 의미가 없기에 국도와 지방도 등 탐방 코스 중심으로 살펴본다. 주요 전각이나 불상 및 탱화 등은 파주의 문화유적이나 지정문화재 등에서 상술되기에 여기서는 절의 내력과 몇몇 특징적 사실들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파주의 사찰

1. 보광사

보광사 가는 길은 서울에서 보자면 제법 멀고 험하다. 서울 구파발에서 1번 국도를 타고 벽제 화장막을 거쳐 광탄 쪽으로 가다가 고양삼거리에서 혜음령(용미리) 쪽으로 가지 말고 영장리 쪽으로 가야 한다. 벽제에는 벽제역이 있었으나,

조선 성종 때 중국 사신을 접대하기 위해 규모가 큰 벽제관을 지었다. 벽제관은 일제 때 경의선 철도 개설로 기능을 상실, 일부가 헐리고 6 · 25전쟁 때 폭격으로 전소된 다음 현재는 벽제관지라는 비석만이 남아 있다.

광탄 영장리 쪽으로 가려면 됫박고개를 넘어야 하는데, 일제는 이를 '퇴패치退敗峙'라 하여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사들이 도망간 곳이라고 왜곡하기도 했다. 됫박고개는 됫박처럼 가파르다는 의미일 뿐이다.

됫박고개를 넘어가면 바로 보광사가 나온다. 보광사는 고령산 앵무봉(꾀꼬리봉) 아래에 위치해 있고, 조계종 25교구 본사 봉선사의 말사이다. 또한 전통 사찰이기도 하다. 현재는 파주시 광탄면에 있으나 예전에는 양주군 백석면에 있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개편으로 파주에 편입됐다. 만일, 행정 개편으로 보광사가 편입되지 않았다면 파주의 사격寺格은 상당히 떨어졌을지도 모른다. 파주에는 보광사 말고는 오래된 사찰이 없고, 나머지 절들도 대개는 해방 이후 창건되어 사격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보광사 일주문을 지나면 바로 수십여 상가가 나온다. 전국 명산대찰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사하寺下 상가들이다. 최근에는 여러 사찰에서 바로 아래 상가들을 일주문 밖으로 이주시키고 있지만, 보광사는 아직 그럴 형편이 안 되는 모양이다. 상가와 주차장을 지나 숲길을 5분 정도 걸으면 바로 경내가 나온다. 오른쪽에 대웅보전을 비롯한 전각군과 종무실이 있고, 왼쪽에는 주지실과 차방 등이 있으며 그 위쪽으로 납골당靈覺殿이 있다.

보광사에는 별도의 사지寺誌가 없다. 『동국여지승람』이나 『양주읍지』 등에 짧은 기록이 남아 있고, 권상노 선생의 『한국 사찰전서』에 「고령산 보광사 법전중창 병단호기서」(1901)가 실려 있어 그 내력을 짐작할 뿐이다. 그러나 조선 후기 중창 과정에 대한 서술이 부실해 현재의 보광사가 있게 된 내력은 알기 어렵다. 이들 기록에는 도선국사 창건, 임진왜란 때 소실 후 중건, 고종 연간의 중수 등이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다.

보광사의 현재 모습은 영조와 대원군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다. 한마디로 보광사는 영조의 생모인 숙빈 최씨의 원찰이다. 숙빈 최씨는 인현왕후궁의 무수리였다가 인형왕후 폐출 시 지극한 공덕으로 숙종을 감동시켜 후궁이 되고 인현왕



2008년 보광사 칠석 야외법회

후의 복위에도 기여를 한 극적인 인물이다. 숙빈 최씨의 아들인 영조는 즉위 후 출신이 빈천한 어머니를 위해 어머니의 원묘園墓인 소령원에 신도비를 세우고 그 비문과 글씨를 당대 최고의 종친宗親들로 하여금 짓고 쓰게 하였으며, 국왕의 소령원 참배를 제도화하였다. 영조는 소령원 근처에 있던 보광사를 숙빈 최씨의 원찰로 삼고 대웅보전과 관음전을 중수하고 만세루를 창건했다(1740년). 영조의 효심은 그대로 손자인 정조에게로 이어졌으나, 그 사이에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죽음이 놓여 있으니 어찌 보면 측은하기 그지없다.

보광사 대웅전 오른편 뒤쪽에는 숙빈 최씨를 모신 어실각御室閣이 있다. 어실각은 단칸의 사각기와집으로 안에는 숙빈 최씨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1979년에 새로 지은 건물이다. 주지 스님(초격)에 의하면 매달 초하루에 공양을 올리고 큰 법회가 있을 때는 위패를 법당 영단에 모셔 축원을 한다고 한다. 보광사 홈페이지에는 '천 년 사찰 효 도량 보광사'가 메인 화면 타이틀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최근의 일로 수원 용주사(사도세자의 원찰)의 효 행사와 더불어 한강 이남, 이북의 대표적 효 도량으로 자리매김하려는 기획으로 보인다. 영조와 그 손자인 정조의 효심이 200여 년 후 불교의 자양분이 된 것이다.

한편, 현재 보광사의 사격은 대원군에 힘입은 바 많으나 이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대웅전 왼편 측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고령산古靈山 보광사普光寺 상축서上祝序'라는 판각이 걸려 있다. 상축이란 사찰에서 임금과 왕비와 태자를 위해 축원하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고종 등극(1864) 후에 궁궐을 신축하고 사찰을 신창하매 보광사도 이전양료二殿兩寮를 일시에 새로 지었으니, 이는 국가의 홍운이요 대원위(대원군)의 숙원 소치였다고 한다. 이로 보면 대원군이 대웅보전의 대중창과 전각의 신창에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대원군은 영조의 현손으로 영조 모친의 원묘인 소령원에도 각별히 신경을 썼을 것이고, 이에 보광사 불사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경복궁을 새로 지으며 겸사로 보광사 중창을 도왔으리라는 추정도 가능하나 확실하지는 않다.

보광사에는 여러 전각과 문화재가 많으나 이를 일일이 다 살펴볼 수는 없어, 특별한 몇 가지만 일별하고자 한다. 먼저 대웅보전의 벽화를 들 수 있다. 대웅전 외벽에는 우측 벽에 위태천 · 천인상 · 신장상, 뒷벽에 반야용선 · 괴석과 모란 · 연화왕생, 좌측 벽에 수월관음 · 육아六牙의 흰 코끼리 등이 그려져 있다. 이는 1898년 상궁 천 씨의 시주를 받아 대웅전을 중창할 때 그린 것으로 보이며, 한국 불교 사찰벽화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또한 대웅전 내 천장에는 사선으로 수십 종의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무속을 포함한 각종 풍속 장면과 화조도 등은 조선 후기 풍속화의 맥을 잇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대웅전 내 감로탱화 하단의 풍속 장면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웅전 내에는 삼장탱[三藏幀]이 걸려 있는데, 중앙에 삼장(지지地持, 천장天藏, 지장地藏)보살이 있고 하단에는 그 권속들이 자리하고 있다. 삼장신앙은 우리나라에서만 보이는 특이한 사례로, 지장보살의 중생 구제의 권능이 삼신三身(법신法身, 보신報身, 화신化身)의 신앙으로까지 발전한 것이다. 유사한 사례로는 전라도 고창 선운사의 삼장 배치 전각을 들 수 있으나 삼장탱화는 극히 드문 귀한 유물이다.

한편 보광사 산신은 남산신이다. 산신 하면 수염 허연 할아버지가 당연하겠지만 보광사의 산신은 산내 암자인 도솔암의 여산신과 짝을 이룬다. 남녀 산신을 함께 모신 무속 굿당의 사례는 더러 있지만 사찰에서 남녀 산신이 같이 모셔지는 경우는 보광사와 도솔암이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유래는 명확하지 않으나, 보광사에서는 봄가을에 산신을 모시고 국산제國山祭를 지낸다. 보광사에는 산신각에 모셔져 있고, 도솔암에는 삼성각에 모셔져 있다.



보광사 벽화

보광사에는 납골당 영각전이 왼쪽 위편에 있는데, 2003년 완공되었다. 모두 만 위 정도를 모실 수 있다고 한다. 또 영각전 위에는 호국대불입상이 있는데 높이 12m, 무게 540t의 대형 석불이다. 1980년 대웅전 보살상의 복장이 도난당했으나 진신사리는 그대로 남아 이를 봉안하고자 만들었다. 이 당시 육군참모총장 등의 후원으로 대불을 조성하고 진신사리를 봉안하였다. 이곳이 임진왜란과 6·25전쟁의 격전지였음을 감안하여 위령불 삼아 조성한 것이라고 한다.

보광사를 둘러보고 내려오는 길에 오른쪽 숲길로 들어섰다. 이곳에는 1980년대에 불교 개혁과 민주화운동에 힘쓰다 열반한 종태 스님 기념비가 있다. 1994년 조계종 개혁종단이 들어서면서 개혁을 주도한 실천불교 승가회의 근본 도량으로 자리 잡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본디 보광사는 봉선사 말사였으나 개혁종단의 실세들이 한동안 자리했던 것이다. 2007년에 와서야 다시 봉선사 스님들이 보광사에 주석하게 되었다. 2000년경에는 종태 스님 비 옆에 비전향 장기수 기념비 또한 세워져 있었으나, 보수단체들의 항의에 못 이겨 현재는 철거된 상태다. 민주화운동과 비전향 장기수의 수년 간의 동거는 이렇듯 허망하게 끝났다. 비극적인 한국 현대사의 한 단편이라고 하겠다.

2. 도솔암

보광사 산내 암자였다가 1970년 조계종 25교구 본사 봉선사의 말사가 되었다. 요즘도 도솔암을 보광사 산내 암자로 다들 알고 있어 주지 스님(성광)은 조금 서운해한다. 도솔암 주지는 보광사가 아니라 본사인 봉선사에서 임면을 한다. 보광사 위쪽 가파른 골짜기를 따라 30분쯤 걸어 올라가면 앵무봉(622m) 아래에 자리 잡고 있다. 앵무봉은 고령산 정상이다.

도솔암의 내력은 불분명하다. 역사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단지 도솔암의 입지로 보아 최소한 조선 중기 이전에 보광사의 산내 암자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솔암은 앵무봉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는데, 김포 · 강화 · 인천과 서해의 수평선까지 보일 정도로 뛰어난 조망지다. 또한 영기가 서려 수행자들의 좋은 수도터로 누구나 인정하는 곳이므로, 일찍이 산사의 수행 암자로 자리 잡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이 도솔암은 6 · 25전쟁에 모두 전소되고 현재의 암자는 1956년 중수되었다. 1968년에는 극락전을 낙성하고 지장탱을 모셨다. 1968년 법당 건축 모연문에 의하면 도선국사가 창건하고 고려의 대각국사, 고려 말 무학대사, 함허대사 등이 수행했다고 하나 알 수는 없다. 전국 사찰들의 대부분이 역사상 유명 고승들의 창건이나 수행터로 스스로를 높이는 까닭이다.

도솔암의 산신은 여산신이다. 삼성각(1963년 중창)에 여산신탱과 여산신상이 함께 모셔져 있다. 산신탱의 화기畵記에 증명 운허(현 봉선사 조실), 주지 도형, 금어金魚 석정(현 무형문화재 불화승)으로 되어 있어 탱화의 조성 시기를 1963년 삼성각 중창 이전으로 잡기는 어려울 듯하다. 3월 16일과 10월 보름에 산신대제를 올린다. 보광사의 남산신과 어떤 관계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 지역의 설화나 산신신앙과 관련이 있을 듯한데, 관련 자료나 증언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도솔암은 3 · 1운동 대표 33인의 한 명이자 대각회 운동의 주창자인 백용성 스님의 수행터로도 유명하다. 스님은 1915년부터 3년간 천수관음기도를 했다고 한다. 현재 요사채로 쓰이고 있는 건물(1956년 중건)은 4칸짜리로 예전에는 법당, 방, 부엌이었으나 현재는 사무실과 스님의 거처로 쓰이고 있다. 이 요사채의 옛 건물은 법당 없이 불상을 모신 인법당人法堂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백용

성 스님은 이곳에서 견성대오했다고 한다. 용성 스님의 대각처인 까닭에 대각사상 연구회(백용성 스님 문도회, 서울 종로 대각사 소재)에서는 도솔암을 성지로 여기고 있으며, 회원 신도들과 종종 성지순례를 하기도 한다. 2008년에는 대각사상 연구회, 보광사와 더불어 도솔암의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고 도솔암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요사채 맞은편 소나무 몇 그루 사이에 평평한 바위가 있는데, 조계종 종정이었던 성철 스님이 수행 기도하던 곳이라고 한다. 이곳을 일명 향로봉이라고도 한다. 겉보기에는 평범하고 자그마한 암반으로 보이는데, 성철 스님에게는 영기가 서린 수도처로 보였던 모양이다. 세인에게는 보이지 않는 어떤 기운이었을지 궁금하기도 하다.

주지 스님이 오르고 내리는 길 모두 짐 트럭으로 운반해 주셔서 어려운 산행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오르고 내리는 길에 노부부가 산행을 하는 모습도 보였다. 앵무봉(일명 비로봉, 꾀꼬리봉)을 갔다 오면 뜻밖의 귀인을 만난다고 하여 이 골짜기 산길을 찾는 사람이 제법 된다고 한다. 험하지만 고즈넉한 산속 숲길도 내년 이후 정비가 되어 일반 자동차도 다닐 수 있는 길이 된다는 소리에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어쩔거나, 스님들 삶도 있을 것이고 큰 사업을 앞두고 있다는데.

3. 혜음사(원)지와 청룡사

보광사를 나와 북쪽 길로 가지 않고 됫박고개를 다시 넘어 고양삼거리에서 우회전하면, 고양시 고양동과 파주시 용미리의 경계인 혜음령고개다. 혜음령은 고려 중기 이전에는 주요 교통로가 아니었다. 평양, 개성, 적성, 양주, 광나루로 이어지는 평탄한 기존 교통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려 중기 남경(서울)이 건설되면서 개성 · 남경을 잇는 교통로의 개척이 필요해졌고, 그 루트가 임진나루(고창포나 문산포)에서 혜음령을 거치는 길이었다. 이 길은 산지와 고개가 많았는데, 특히 혜음령에는 호랑이와 도적이 많아 행인들을 보호할 시설의 필요성

이 대두되었고, 이에 혜음사(원)가 건립되었던 것이다. 이런 사정은 『동문선東文選』에 있는 김부식의 「혜음사 신창기惠蔭寺新創記」에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혜음원은 1121년(예종 16)에 완공되었다. 원院은 일종의 국립 숙박 시설이다. 원은 여행자나 행인에게 숙박, 휴식, 식사 등을 제공하는 구실을 하였고, 고려 시기 원은 주로 사찰 승려들이 운영하였는데 주요한 지역에는 왕실이 적극 지원하였다. 고려 사찰의 명칭에 ○○원이 많이 발견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원은 또한 승려나 순례자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거나 행려병자의 치료와 빈민구제 사업 등의 역할도 하였다. 혜음사인지, 혜음원인지 애매한 것도 이 때문이다.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굴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사적 464호로 지정되어 있다.

고려 시기 원의 전체 모습이 발굴되는 것은 혜음원지가 처음이다. 더구나 국왕이 임시로 머무는 행궁터도 발견되었다고 하니 규모가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경북 조령원이나 충주 미륵대원도 전체 모습이 발굴된 적이 없어 더욱 귀중한 유적이다. 또한 고려 초기의 각종 유물이 대량 발굴되어 원지 개요와 더불어 「조사 보고서」(단국대 매장문화재연구소, 2006)에 수록되어 있다.

혜음원지는 남쪽에서 혜음령을 넘어 광탄면 용미4리에 이르러 길 왼편 개천을 따라가면 나온다. 현재 발굴 중이라 일반의 접근이 통제되어 있으나 그 전경은 멀리서 확인할 수 있고, 잘하면 발굴조사단의 콘테이너 박스에서 설명을 들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 혜음원지 바로 밑에는 청룡사라는 절이 있다. 발굴팀은 원지의 규모가 지금 터보다 훨씬 넓다며 사찰을 수용하려고 하고 있다. 청룡사는 태고종 사찰로(주지 정원) 30여 년 전에 도봉산에서 이전해 왔다. 도봉산에서도 국립공원 정화조치에 따라 철거당하고 이곳 우암산 아래에 새 터를 마련했는데 또 수용당해야 하니 억울한 심정일 게다. 청룡암은 종교 시설로도 인가받지 못한 채 개인 주택 거실에 법당을 마련한 전형적인 사설私設 사암寺庵이다. 마당에 도봉산에서 옮겨온 석탑과 돌부처, 그리고 법당에 토불이 있다. 지금도 단오에는 도봉산 옛터로 기도를 다닌다고 한다. 수용당하지 않기 위해 지난 8월에는 절 이름도 혜음사로 바꾸었다고 하나 앞으로 어찌 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4. 용미리 석불입상과 용암사

혜음령에서 78번 지방도를 따라 10여 분을 가면 길에서도 거대한 불상을 볼 수 있다. 높이가 무려 17.4m, 얼굴 길이만도 2.45m인 국내 최대의 마애석불이다. 정식 명칭은 용미리 석불입상인 듯하나 대개는 용미리 쌍미륵으로 불린다. 미륵님으로 믿으며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자 치성을 드리는 탓이다. 예전에는 미륵댕이로도 불렸다. 용미리 산8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물 제93호이다. 아래에는 용암사가 있다.

장지산 아래 천연으로 솟은 바위 절벽을 이용하여 몸통은 마애각법으로 조각하고 그 위에 두상佛頭을 얹어놓았다. 왼편의 불상은 둥근 갓[圓笠佛]을 쓰고 있고, 얼굴은 사각에 자연스런 미소가 돋보인다. 목은 원통형이고, 가슴은 당당하지만 바위의 제약으로 목과 가슴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두 손은 가슴 앞에 들어 연꽃을 쥐고 있다. 오른쪽 불상은 사각형 갓[方笠佛]을 쓰고 있고, 두 손은 가슴 앞에 합장을 하고 있다. 얼굴은 직사각형이고, 그외 조성 기법은 원립형과 거의 유사하다. 원립불은 남상, 방립불은 여상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냥 속설일 뿐 확실한 근거는 없다. 아마도 쌍미륵 조성 연기가 아들 기원과 관련되어 있기에 생긴 설일 것이다.

방립불 뒷벽에는 발원문이라는 글자를 포함한 명문이 있어 조성 연기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마모가 심해 판독이 어렵다. 그러나 최근 명문이 판독되어 조선 초 세조 연간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세조비 정희왕후 발원), 불상의 양식으로도 고려불이 아니라 조선 초기의 불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아직 학계에서 정설로 자리 잡은 것은 아니다.

원립불의 어깨 위에는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조잡한 미륵불상과 탑이 있었으나 현재는 용암사 대웅전 뒤 샘가에 놓아두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도 언젠가 석등을 시주하였다고 하나 현재는 파손되어 경내 한쪽에 방치되어 있다.

쌍미륵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온다. 고려 선종(1084~1094)이 후사가 없어 원신궁주 인주 이씨를 맞았으나 역시 후사가 없었다. 원신궁주의 꿈에 두 도승이 나타나 "우리는 파평군 분수원 장지산 남쪽 기슭 암벽 사이에 사는 사람

인데 배가 고프니 밥 한 그릇씩 달라" 하고는 사라졌다. 원신궁주가 왕에게 고하고 사람을 보내 살펴보니 엄청 큰 바위 두 개가 나란히 서 있었다. 이에 두 도승의 모습을 바위에 새기고 절을 지어 아들을 빌었더니 한산후 균이 태어났다.

이는 전설일 뿐 역사 기록은 없으나 고려 선종과 인주 이씨의 정치적 관계를 살펴보면 꽤 설득력이 있다. 선종은 문종과 인예태후 인주 이씨 사이에서 태어났고, 남경(서울)을 근거로 하고 있던 인주 이씨 세력은 남경 가는 길목인 이곳에 거대한 불상을 세워 세력을 과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구나 선종의 후사를 인주 이씨 집안의 원신궁주가 낳게 하려는 열망은 매우 컸을 것이다. 전설이 마냥 전설은 아닌 것이다. 이후 쌍미륵은 오랜 세월 득남의 기도치성터로 원근에 소문이 났고, 이는 오늘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분수원이 예전에는 양주였기에 전설의 가공 유통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쌍미륵 아래에는 용암사가 있다. 용암사는 조계종 봉선사 말사이자 전통 사찰이다. 용암사는 1920년대 처음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며, 1950년대와 1976년에 사격을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한다. 1962년에 조계종에 등록했고, 이후 여러 주지를 거쳐 2002년부터는 봉선사 출신의 태공 스님이 주지를 맡고 있다. 2001년 오현 스님(비구니) 당시 대웅전이 전소되어 다시 중건했다. 대웅전 안에는 지장탱과 감로탱이 있고, 마당 앞에 범종각이 있다. 용암사에서는 9월 9일에 미륵제를 지낸다.

한편, 용암사는 전통 사찰임에도 불구하고 사찰 땅이 없다. 쌍미륵 인근은 국유지이고, 용암사 경내와 인근은 대구 서씨 등의 사유지와 국유지이다. 어떻게 전통 사찰로 지정되었는지 매우 의아하다. 현 주지 스님도 전통 사찰 지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 아마도 용암사 자체보다는 보물인 쌍미륵을 보고 지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5. 관용사

쌍미륵을 지나 분수리에 이르면 고려 명장 윤관 장군 묘가 나온다. 규모가 매우 큰 분묘로 파평 윤씨 대종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묘 아래에는 여충사가 있는데, 안에는 1932년 함경남도 단천의 윤관 영정을 모사한 영정이 모셔져 있다. 윤관 장군 묘는 심지원의 묘와 앞뒤에 위치해 있어 200여 년을 넘는 산송山訟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심지원은 청송 심씨로 조선 중기의 문신인데, 어떤 연유인지 윤관 묘와 앞뒤에 자리 잡고 있다. 이에 파평 윤씨와 청송 심씨 사이에 200여 년 넘게 산송이 계속되어 인구에 회자되다가 작년에 파평 윤씨 측에서 2500평을 내주어 심씨 묘역을 이장하였다. 조선 후기 명당터를 두고 일어난 산송의 전형이라 하겠다.

윤관 묘를 뒤로 하고 법원읍 삼방리 애월 저수지로 가면 관용사가 있다. 광탄에서 지방도 56번 도로로 타고 가다가 대능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애월 저수지 쪽으로 올라간다. 관용사는 현재 총화종 소속 사찰로 되어 있다. 3칸 대웅전과 산신각이 있고 대웅전 왼편 산자락에 철불 형식의 좌불이 모셔져 있다.

현재 진암 스님(71세)이 주지를 맡고 있는데, 그는 파주 불교연합회 회장도 겸하고 있다. 관용사는 1956년 최명옥 보살이 꿈에 애월 저수지에서 용빛이 관용사 촛대바위 쪽으로 환하게 비치는 것을 보고 창건했다고 한다. 절터는 전주 이씨 양녕대군파 종중 땅으로 절에서는 약간의 임대료를 내고 있다. 법주사 출신의 이윤재 스님이 관리하다가 1971년 진암 스님에게 양도했다고 한다.

진암 스님은 법주사 산내 암자 현암사(아버지가 주지였다)에서 태어나 71년 법주사로 출가했다. 이후 파주 보광사 등 조계종 여러 절의 주지를 역임하다 홀로 수행하고자 이 절에 들어왔다고 한다. 절은 관리의 편의상 총화종 소속이지만 스님은 여전히 조계종 승적을 유지하고 있다. 조계종 승려이면서 조계종 사찰이 아닌 다른 종단 사찰(대개는 사설 사암)에 주석하는 사례가 제법 많은데, 진암 스님이 대표적 사례라 하겠다. 파주시 사찰에도 이런 사례가 많다.

6. 감악산 범륜사(운계리 사지)

법원읍을 뒤로 하고 동북방의 적성면 감악산으로 향한다. 범륜사는 적성면 설마리의 감악산을 오르는 등산로상에 있다. 태고종 사찰로 금봉 스님이 주지를 맡고 있다. 감악산에는 원래 감악사, 운계사, 신암사 등이 있었다고 전해지나 모두 소실되었고, 지금의 절은 1971년 옛 운계사터에 다시 세운 것이다. 운계사의 창건 연대 등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1481년(성종 12)에 편찬한 『동국여지승람』에 이 절이 존재한다고 기록되어 있고, 1799년(정조 23)에 편찬한 『범우고』에 폐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을 뿐 자세한 연혁은 전하지 않는다.

범륜사 옥불상



현재 있는 건물은 대웅전과 강원, 요사채 등이고 요사채 옆에는 조선 후기의 기와 조각이 쌓여 있다. 현재의 3층 석탑은 조선시대의 탑재塔材에 새로이 화강암을 더하여 쌓은 것이다. 탑재는 옥개석 3개, 탑신석 1개, 지대석 1개가 남아 있었다. 대웅전에는 19세기 후반의 것으로 보이는 시왕탱과 신중탱, 그리고 산신탱이 있다. 시왕탱이나 신중탱은 조선 후기 퇴화한 불화 기법을 엿보게 하며, 산신탱은 그나마 작품성이 있다.

감악산(675m)은 파주 적성의 진산鎭山이자 경기 5악의 하나이다. 또한 개성 덕물산과 더불어 전래 토속신앙의 성지였다. 많은 무속인들의 기도치성터였고 일반인들의 기도 행렬도 끊이지 않는 곳이다. 정상 오르는 길의 운계폭포는 무속인들의 대표적인 치성터였으나 현재

는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감악산 정상에는 감악산비가 서 있는데 기단부, 비신, 개석을 갖춘 화강암 석비다. 글자가 전혀 없어 몰자비沒字碑라 불리기도 하며, 설인귀비 혹은 삐뚤대왕비로 불린다. 민간이나 무속에서는 당나라 장수 설인귀를 장군신으로 모신다.

7. 미타사와 파평 용연

미타사는 파평면 늘노리에 위치하고 있지만 찾아갈 때는 법원읍 파평산 동쪽에서 올라가야 한다. 파평산(495m) 정상 공군기지 바로 아래에서 수백 계단을 내려가면 미타사가 나온다. 현재는 태고종 소속으로 주지는 해정 스님이다.

미타사는 본디 금강사 산내 암자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금강사가 폐사되자 아미타불상을 모시고 다시 절을 세워 미타사라 개칭하였다고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금강사에 미타사가 있었다고 하며, 「인물조」 고려편에는 고려 초 파평 윤씨의 가계가 설명되어 있다. 금강사는 고려 개국공신 윤신달의 아들 금강이 자신의 집터에 창건하였다고 한다. 윤금강의 아들은 집형이고 집형의 아들이 유명한 윤관 장군이다. 윤관의 아들은 윤언이다. 『고려사』에 헌종이 금강사에 행행하여 반승飯僧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금강사의 사격이 대단했음을 알 수 있다. 금강사의 구지는 정확하지 않다. 금강사는 창건 내력으로 보아 파평 윤씨의 원찰이 분명하다. 이는 현재 금강사의 후신인 미타사 나한전에 윤관의 초상을 모신 것으로 이어진다.

미타사는 조선 후기 수차례 중수가 이루어졌으나 6 · 25전쟁 때 영국군이 철수하면서 전소시켰고, 현재의 미타사는 1964년 중창한 것이다. 옛 법당 터 뒤쪽에 대웅전이 있고, 멀리 오른쪽에 나한전이 있다. 나한전에는 석불좌상, 빈두루존자와 정우존자, 나한상 등이 모셔져 있고, 한편에는 윤관 장군의 초상이 모셔져 있다. 현재의 미타사는 파평 윤씨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파평 용연龍淵은 파평면 늘노리에 있다. 용연에는 다음과 같은 설화가 전한다. 신라 말 진성여왕 7년(893) 한가위에 용연 일대에 구름이 덮이고 안개가 끼고 뇌



미타사 돌탑군

성벽력이 쳤다. 윤온이라는 할머니가 보니 못에서 빛이 솟으며 금궤가 떠올랐다. 상자를 열어 보니 옥동자가 있는데 좌우 어깨 위에 일월 상징의 붉은 점이 있고, 겨드랑이에는 81개의 비늘이, 또 발에는 북두칠성을 나타내는 일곱 개의 흑점이 있었다. 아이를 거두어 기르니 장성하여 큰 벼슬을 지내고 파평 윤씨의 시조가 되었다.

『윤관 장군 일대기』에 의하면 윤관이 거란군의 포위를 뚫고 탈출할 때 잉어떼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에 파평 윤씨들은 시조의 활명지은이 있다 하여 잉어를 먹지 않는다고 한다. 한편 시조 윤신달의 겨드랑이에 잉어 비늘이 있다 하여 잉어를 먹지 않는다는 속설도 있다. 용연 못가에는 제상이 있어 파평 윤씨 대종회에서 향사를 올리며, 전국 각처의 윤씨들이 참례를 한다고 한다. 평소에는 용연의 신이한 힘을 믿는 무당들이 치성기도를 자주 드린다.

또 문산읍 마전1리 군부대 안에 있는 군 법당 평화통일사도 들러볼 만하다. 주지 윤동암 스님은 고암 스님의 상좌로 1960년대부터 30여 년간 임진각 등 서

부전선에서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목탁 수행을 계속해 왔다고 한다. 1990년대에 1사단장 등의 도움으로 현재의 위치에 법당을 설립하고 법화사경 등 법화 수행을 지속하고 있다.

8. 약수암과 상락원

문산에서 1번 국도를 타고 내려오다 파주역 못 미쳐 연풍리 쪽으로 좌회전하면 약수암에 이른다. 약수암은 연풍3리 갈곡천 건너편 태봉산 밑에 자리 잡고 있다. 태봉산은 고려시대 왕실의 태를 묻었다 해서 생긴 이름이며, 달리는 산의 형상이 거북이와 같아서 거북산이라고도 한다. 고려 시기 태봉사가 있었다고 하며 고려 불상이 우물터에서 출토되기도 했다.

약수암은 1958년 정안영 보살이 창건했다. 정 보살은 아들을 위해 기도하다 쓰러졌는데, 깨어난 후 우물터를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움막을 짓고 나무아미타불 육자염불 수행을 하였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사람의 마음과 병환을 치유하는 능력을 얻게 되었고, 나무아미타불 염불과 약수로 병환을 치료하고 소원을 성취시키면서 오늘의 약수암을 일구게 되었다. 태고종 소속이며 현재 주지는 정 보살의 아들인 성파 스님이다.

이후 약수암은 탑형 납골당[靈塔]을 야외에 건립하고 이어 실내 납골당도 건립하여 파주에서도 유수한 납골당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1988년 실비 노인요양 시설 거북마을을 건립하여 갈 곳 없는 노인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2006년 신고시설 인가를 받는 등 사회복지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2007년에는 사회복지법인 성파원의 설립을 허가받았다. 약수암은 교세나 사회사업 측면에서 파주시 소재 태고종 30여 사찰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다. 태고종 경기북부 종무원 사무실도 약수암 경내에 자리하고 있다.

약수암에서 다시 1번 국도로 나와 월롱역 못 미쳐 368번 지방도로 우회전하고 한참을 가다 보면 상락원이 나온다. 상락원은 파주시 야동동(금촌)에 있으며 정식 명칭은 상락원 지장영묘전(종교법인)이다. 상락원은 특이하게도 금촌 용상골



상락원 납골당 전경

낙원 공원묘지 내에 위치해 있다. 33년 전 현 조실 운오 스님이 설립하였으며, 사찰에서의 납골당 건립은 최초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현 주지는 운오 스님의 딸인 정원 스님이다. 조실 운오 스님은 시다림(불교식 상례)과 지장기도 전문가다.

법당은 공원묘지 서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예불과 불공 및 천도재 집전 장소로 쓰인다. 납골당은 공원묘지 동쪽에 있으며 팔각정 형태의 2층 건물이다. 제사는 매달 지장재일(음력 18일)에 그 달에 해당하는 영가(혼백)를 모시고 지낸다. 납골당 봉안 후 일체의 추가 비용을 받지 않으며, 영가를 모시는 기간은 100년이라고 한다. 납골당의 규모는 약 2000위다.

약수암과 상락원은 기존 사찰의 배경 없이 자력으로 납골 시설 건립과 운영에 성공한 사례다. 사찰, 혹은 사찰 이름을 빌린 납골 시설의 문제점이 빈발하고 있는 요즈음 이러한 납골 시설의 존재는 이채롭다.

9. 성재암

금촌에서 310번 지방도로를 타고 당하리에 가면 성재암이 나온다. 성재암은 세조의 비인 정희왕후(세조의 왕릉이 광릉이고, 정희왕후의 위패는 봉선사에 모셔져 있다)가 창건한 절이다. 정희왕후는 친정아버지 파평부원군 윤번과 친정어머니가 죽자 극락왕생을 빌고자 성재암을 창건했다. 성재암은 파평 윤씨 정정공파 묘역 내에 위치해 파평 윤씨 일가를 위한 분암墳庵임이 분명하다. 이처럼 묘역 내에 분암이 설립된 사례는 거의 없다.

정희왕후는 36칸 절을 짓고 사액을 내리는 한편 목불좌상을 모시고 스님 20여

명이 상주하도록 했다. 중종 때 문정왕후의 아버지 파산부원군 윤지임이 죽자 성재암의 규모는 더욱 커졌다. 그러나 문정왕후의 죽음 이후 성재암은 쇠락하게 되었다. 왜정 말기에는 폐사의 위기에서 목불상을 보광사 산내 암자인 수구암으로 옮겼고, 6 · 25전쟁 때 건물이 모두 파괴되었다.



성재암 법당 현판

1993년 파평 윤씨 교하 종중에서 땅 500평을 시주해 1994년 성재암을 재건했다. 1996년에는 수구암의 목불상을 다시 가져와 모시고, 조계종 봉선사의 말사로 등록했다. 현재 주지는 미등 스님이다. 성재암 본전의 현판 중 오른쪽에 있는 본방능재本房陵齋는 본디 파평부원군 내외의 재실 현판이었다고 한다. 이 재실에서는 족보를 편찬하기도 했는데, 최근 재실의 기와를 가는 도중 족보 목판 일부가 발견되었다. 사찰 승려들이 족보 파는 일을 하기도 했는데, 그 대가로 쌀을 내려주어 절을 두포사豆泡寺라 부르기도 했다.

파평 윤씨 정정공파 묘역은 교하읍 당하리, 와동리 일대 교하 종중의 선산에 약 600여 기가 조성되어 있다. 이곳은 조선시대 한 종중의 묘가 연대별로 집중되어 있어 매우 중요한 유적이다. 우리나라 유일의 조선시대 분묘 야외 박물관이란 평을 들을 정도다.

맺는 말

월롱산의 용상사(월롱면 덕은리)나 검단산의 검단사(탄현면 성동리) 등 전통사찰을 살펴보지 못해 아쉽다. 파주시에서 전통 사찰은 앞에서 살펴본 보광사와

용암사, 그리고 위의 두 사찰까지 4개소이다. 그러나 사실 전통 사찰인가 아닌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1962년 박정희 의장 시절의 불교재산 관리법, 1988년 10월 27일 전통사찰 보전법으로 이어지는 정권과 불교와의 관계는 그다지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다. 하여 전통 사찰 여부를 떠나 열심히 제 소임을 다하는 사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파주의 사찰과 문화유적을 하루 이틀에 돌아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광사, 미타사, 성재암 등의 원찰(분암) 코스나 파주의 대표적 사찰 납골당 코스 등을 설정하고 인근의 문화유적과 더불어 살펴보는 기획이 필요하다 하겠다.

유교제향

정승모_지역문화연구소 소장

유교제향의 기본 사항

1. 제향일

향교의 기본 제례로는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갖는 삭망제朔望祭가 있고, 1년에 두 번 춘추로 지내는 석전례釋奠禮가 있다. 석전례는 음력으로 2월과 8월에 처음 오는 정일丁日, 즉 초정일初丁日로 지정되어 있어서 이후 진행되는 서원 · 사우제향은 향교제향과 겹치는 일이 없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오랜 원칙에 변화가 생겼다. 성균관 총회에서는 2007년 봄제사, 즉 춘향春享부터 공자가 태어나신 음력 4월 11일을 양력으로 환산하여 5월 11일로 제향일을 정해 지내도록 하고 가을제사, 즉 추향秋享은 공자가 돌아가신 8월 27일을 양력으로 환산하여 9월 28일로 정하여 지내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전국 234개 향교 재산은 각 재단이사회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따를 의무는 없었다. 그 결과, 결정 과정에서 원래의 제향일을 고수하는 향교와 성균관의 결정을 따르는 향교로 나뉘게 되었다. 파주 지역은 기존의 4개

군현이 합쳐진 곳이어서 장단향교를 제외하면 3개 향교가 각기 이전의 권역을 지키고 있는데, 이번 결정에도 각기 다른 선택을 하여 1년에 4가지 석전제향일이 생기는 결과가 되었다.

파주향교와 교하향교는 성균관의 결정을 따르기로 해 파주향교는 5월 11일과 9월 28일에 석전례를 거행하며, 교하향교의 경우는 추향만 제를 지내 9월 28일에 지낸다. 적성향교는 원래대로 음력 2월과 8월 초정일에 석전례를 지낸다.

참고로 관할 읍면은 파주향교의 경우 광탄 · 파평 · 문산 · 법원 · 파주 · 월롱이고, 교하향교는 교하 · 금촌 · 탄현 · 조리이며, 적성향교는 적성면과 과거 적성 땅이었던 양주 남면이다. 장단향교는 복구가 되지 않아 제향 행사가 없다.

서원과 사우의 제향일은 향교 석전제향일인 초정일을 피해 대개 봄에는 음력 2 · 3월 중정일中丁日과 하정일下丁日, 가을에는 8 · 9월 중정일과 하정일을 잡는다.

왕실의 능원陵園 제사는 유교제향은 아니지만 지방 유림들이 직간접으로 관여해 왔기 때문에 유교제향에 포함시켰다. 또한, 원래는 각종 절기에도 지내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비용의 문제로 대개는 생략되고 조선 후기 이래 기신제忌辰祭만 지내고 있다.

2. 제향 절차

향교와 서원 및 사우의 제향을 비교하면 우선 눈에 띄는 것이 변두籩豆의 수다. 향교에서는 4변4두를 쓰는 반면 서원 · 사우에서는 2변2두를 쓴다. 향교에 대성전大成殿이라는 전이 있는 것은 공자를 제후의 격으로 모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대부를 모시는 서원 · 사우의 제향과는 격의 차이가 있다. 향교와 서원, 사우는 제향 절차도 다르다. 그러나 향교 간에, 또는 서원 · 사우 간에는 별 차이가 없다. 다음은 자운서원 홀기이다.

○자운서원紫雲書院 홀기笏記(혼례나 제례 때에 의식의 순서를 적은 글)

執禮 以擧案 獻官及諸執事諸生 先就外位.

贊者 引初獻官 陞自東階 點視陳設訖 還出.

大祝 入 開櫝啓蓋.

執禮贊者司醴(典禮) 先就拜位 皆再拜 各就位.

창홀唱笏(홀기를 읽는 것)

贊者 引大祝及諸執事 入就拜位 皆再拜 皆詣盥洗位 盥手帨手 各就位.

贊者(謁者) 進初獻官之左 請行事.

贊者 引獻官及諸生 入就拜位 皆再拜.

행전폐례行奠幣禮[폐백(모시18자)을 올리는 의식]

贊者 引初獻官 詣盥洗位 搢笏 盥手帨手 執笏 引詣栗谷先生神位前 跪.

奉香 獻官之右 西向跪.

奉爐 獻官之左 東向跪.

(獻官)搢笏 三上香 奉香奉爐 少退立.

大祝 獻官之右 西向跪 奉幣 授獻官.

獻官 執幣獻幣 以幣授大祝.

大祝 獻官之左 東向跪 受幣 奠于神位前.

獻官 執笏 俯伏興. 次詣沙溪金先生神位前 跪.

奉香 獻官之右 西向跪.

奉爐 獻官之左 東向跪.

獻官 搢笏 三上香 奉香奉爐 少退立.

大祝 獻官之右 西向跪 奉幣授獻官.

獻官 執幣獻幣 以幣授大祝.

大祝 獻官之左 東向跪 受幣 奠于神位前.

獻官 執笏 俯伏興 次詣玄石朴先生神位前 跪.

奉香 獻官之右 西向跪.

奉爐 獻官之左 東向跪.

獻官 搢笏 三上香 奉香奉爐 少退立.

大祝 獻官之右 西向跪 奉幣授獻官.

獻官 執幣獻幣 以幣授大祝.

大祝 獻官之左 東向跪 受幣 奠于神位前.
獻官 執笏 俯伏興. 引降復位.

행초헌례行初獻禮(초헌관이 첫 번째 술을 올리고 축을 읽는 의식)
贊者 引初獻官 詣栗谷先生罇所 西向立.
奉爵奠爵司罇 升 由司罇 擧冪酌酒 引詣栗谷先生神位前 跪 搢笏.
奉爵 受爵 獻官之右 西向跪 以爵授獻官.
獻官 執爵 獻爵 授奠爵 奠爵 以爵受 奠于神位前.
執笏 俯伏 興 次詣 配位罇所 西向立 擧冪酌酒 引詣沙溪金先生神位前 跪 搢笏.
奉爵 受爵 獻官之右 西向跪 以爵授獻官.
獻官 執爵 獻爵 授奠爵 奠爵 以爵受 奠于神位前 執笏 俯伏 興.
次詣玄石先生神位前 跪 搢笏.
奉爵 受爵 獻官之右 西向跪 以爵授獻官.
獻官 執爵 獻爵 授奠爵 奠爵 以爵受 奠于神位前. 執笏 俯伏 興.
奉爵奠爵司罇 降復位. 引詣栗谷先生神位前 跪 搢笏.
大祝 獻官之左 東向跪 俯伏 獻官以下 皆俯伏.
讀祝.
執笏 俯伏 興 引降復位.

행아헌례行亞獻禮(아헌관이 두 번째 술을 올리는 의식)
贊者 引亞獻官 詣盥洗位 搢笏 盥手帨手 執笏. 引詣栗谷先生罇所 西向立.
奉爵奠爵司罇 升 由司罇 擧冪酌酒 引詣栗谷先生神位前 跪 搢笏.
奉爵 受爵 獻官之右 西向跪 以爵授獻官.
獻官 執爵 獻爵 授奠爵 奠爵 奠于神位前. 執笏 俯伏 興.
次詣配位罇所 西向立 擧冪酌酒. 引詣沙溪金先生神位前 跪 搢笏.
奉爵 受爵 獻官之右 西向跪 以爵授獻官.
獻官 執爵 獻爵 授奠爵 奠爵 以爵受 奠于神位前. 執笏 俯伏 興.
次詣玄石先生神位前 跪 搢笏.
奉爵 受爵 獻官之右 西向跪 以爵授獻官.

獻官 執爵 獻爵 授奠爵 奠爵 以爵受 奠于神位前. 執笏 俯伏 興. 引降復位.

행종헌례行終獻禮(종헌관이 마지막 술을 올리는 의식)

贊者 引終獻官 詣盥洗位 搢笏 盥手帨手 執笏. 引詣栗谷先生罇所 西向立.

奉爵奠爵司罇 升 由司罇 擧冪酌酒 引詣栗谷先生神位前 跪 搢笏.

奉爵 受爵 獻官之右 西向跪 以爵授獻官.

獻官 執爵 獻爵 授奠爵 奠爵 以爵受 奠于神位前. 執笏 俯伏 興.

次詣配位罇所 西向立 擧冪酌酒. 引詣沙溪金先生神位前 跪 搢笏.

奉爵 受爵 獻官之右 西向跪 以爵授獻官.

獻官 執爵 獻爵 授奠爵 奠爵 以爵受 奠于神位前. 執笏 俯伏 興.

次詣玄石先生神位前 跪 搢笏.

奉爵 受爵 獻官之右 西向跪 以爵授獻官.

獻官 執爵 獻爵 授奠爵 奠爵 以爵受 奠于神位前. 執笏 俯伏 興 引降復位.

獻官 皆再拜.

행음복례行飮福禮(제사한 술을 마셔 복을 받는 의식)

贊者 引初獻官 詣飮福位 西向跪.

大祝 第一爵及脯徹 授獻官 獻官 受爵 爵 受胙. 執笏 俯伏 興. 引降復位.

大祝 入 徹籩豆.

獻官及諸生 皆再拜.

闔櫝.

행망료례行望燎禮(축문과 폐백을 태워 땅에 묻는 의식)

贊者 引初獻官 詣望燎位 北向立.

大祝 入 以篚取祝及幣. 降自西階 可燎 置于坎. 引降復位.

贊者 進初獻官之前 告 禮畢.

贊者 引獻官及諸生 以出.

大祝及諸執事 皆再拜 次出.

執禮贊者 入就拜位 皆再拜而出.

파주 향교 및 서원 · 사우 기본 현황

1. 파주향교

○기본 현황

소재지 : 파주읍 파주리 335

문화재 지정 :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83호(파주향교 대성전)

파주시 향토유적 제2호(파주향교, 1986년 4월 17일 지정)

문화재 지정 연월일 : 1983년 9월 19일(대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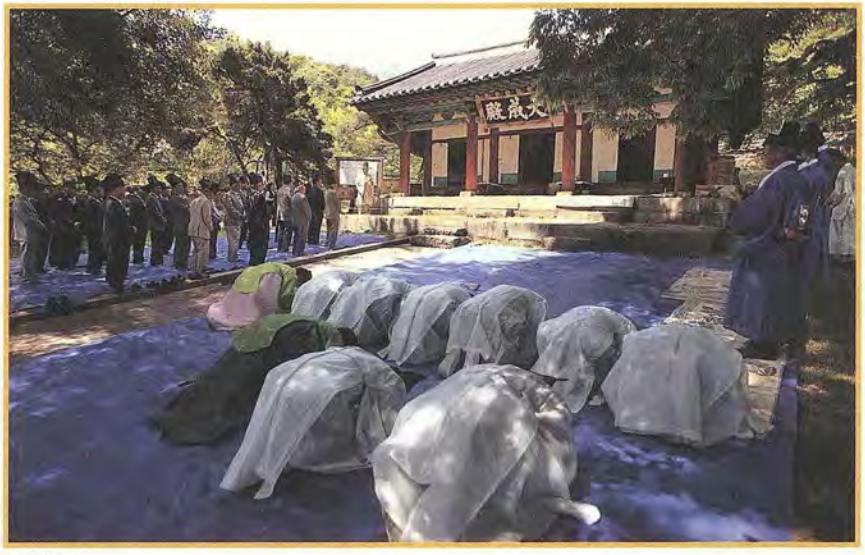
향교 권역 : 문산읍, 파주읍, 광탄면, 월롱면, 파평면 등 5개 읍면

시대 : 조선 후기 1764(영조 40)

소유자 : 경기도 향교재단

건축물 구조 : 목조와즙

건물 현황 : 대성전, 명륜당, 동재, 교직사, 내 · 외삼문 등



파주향교

○향교연혁

_파주향교는 1304년(고려 충렬왕 30) 파주 봉서산 남동쪽 아래 구 향교골에 최초로 건립되어 그 명칭을 대성당大成堂이라 불렀다. 이후 조선시대에 들어 1398년(태조 7) 봉서산 아래 대성전大成殿을 창건하여 성현들의 위패를 봉안하였으며 1414년(태종 14) 교하현 통합과 함께 재건축되었다.

_1980년에는 행정 지원으로 향교 입구 도로를 포장하는 등 향교 주변 정화를 완료하였고, 1991년 목조로 지은 교직사를 완공하고, 3년 후에는 향교 토지 일부를 매각하여 파주읍 파주리 170-2번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유림회관을 준공하였다.

2. 교하향교

○기본 현황

소재지 : 금능동 355

문화재 지정 :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11호

문화재 지정 연월일 : 1983년 9월 19일

향교 권역 : 금촌1동, 금촌2동, 교하읍, 조리읍, 탄현면 등 5개 읍면동

시대 : 조선 후기 영조7년(1731)

소유자 : 경기도 향교재단

건축물 구조 : 목조와즙

건물 규모 : 대성전 17.46평,
명륜당 10.99평



교하향교

○향교 연혁

_교하향교는 조선시대 전기 태종 7년(1407) 탄현면 갈현리에 창건되었으나 조선 후기 영조7년(1731) 문산읍

운천리에 있던 인조대왕능인 장릉長陵이 갈현리로 천장되면서 현재의 위치인 금능동으로 이건되었다.

_교하향교의 건축물 배치 구조는 전학후묘前學後廟의 형태로 강학 공간인 명륜당이 전면에 배치되고 제향 공간인 대성전이 뒤에 배치된 형태이다.

_1968년 담장을 보수하고 1972년 명륜당 및 기타 부속 시설을 중건하였다. 1988년 서재를 신축하였으며 1992년 외삼문 밖에 교직사를 신축하였으나 2004년 이 일대가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되면서 교직사를 이전 신축하고 화장실과 주차장 설치 등 주변 정비가 이루어졌다.

_현재 건축물은 대성전(3칸), 명륜당(3칸), 동무(2칸), 서무(2칸), 동재(2칸), 서재(2칸), 내삼문, 외삼문, 교직사, 화장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3. 장단향교

○기본 현황

소재지 : 군내면 읍내리 613

시대 : 조선 전기(1400년대 초로 추정)

문화재 지정 여부 : 비지정

소실 년대 : 6 · 25전쟁 당시

건축 규모 : 대성전大成殿, 동무東廡, 서무西廡, 명륜당明倫堂, 동재東齋, 서재西齋, 전사청典祀廳, 외삼문, 내삼문 등

건물 배치 구조 :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 구조

건물지 확인 : 1998년

관리운영 주체 : 파주향교 유림

○향교 연혁

_장단향교는 파주 지역의 다른 향교와 비슷한 조선 초기(1400년대 초기)에 설립되어 유지되어 오다가 임진왜란 때 건물이 소실된 후 복원되었으나 6 · 25

전쟁으로 건물 일체가 다시 소실된 후 현재까지 복원되지 못했다.

_장단향교는 건립 이후 선현 제향 및 장단 지역의 교육기관이었으나 갑오경장 이후 교육적 기능은 상실되고 6 · 25전쟁 이전까지 선현 제향의 기능을 유지해 왔다.

_6 · 25전쟁 당시 건물 전체가 소실된 후 향교 소재 지역이 미확인 지뢰지대인 민통선 지역에 포함되어 그동안 위치가 확인되지 않다가 1998년 파주향교 유림들에 의해 향교 터가 확인되었다.

_1980년에 발간된 『장단군지』에 소실되기 이전에 촬영된 장단향교의 사진 자료가 있어 향교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대성전을 비롯해 동무, 서무, 명륜당, 전사청, 동재, 서재, 외삼문, 내삼문 등 일반적인 향교 건축물을 모두 갖춘 규모 있는 향교로 추정된다.

_현재 장단향교지에는 내 · 외삼문 초석과 대성전, 명륜당 건물지, 곡담 일부가 잔존하고 있어 전체적인 건물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_장단향교가 위치한 군내면 읍내리는 백학산 자락 아래이다. 고려시대 공민왕이 임시 궁궐을 축조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조선시대 이후 장단 지역의 중심지로 장단군청사를 비롯해 초등학교 등이 있었다.

4. 적성향교

○기본 현황

소재지 : 적성면 구읍리 476-2

문화재 지정 : 파주시 향토유적 제3호

문화재 지정 연월일 : 1986년 4월 17일

향교 권역 : 적성면, 양주시 남면, 연천군 백학면

시대 : 조선 전기

소유자 : 경기도 향교재단

건물 현황 : 대성전, 명륜당, 외삼문, 교직사, 홍살문, 송덕비 등



적성향교

건물 구조 : 목조와즙

건축 규모 : 대성전 정면 8.4m, 측면 4.65m

명륜당 정면6.5m, 측면4.5m

○향교 연혁

_적성향교는 조선시대 초기에 창건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창건 연대에 대한 기록이 없다. 적성에 현감縣監을 두었던 태종 13년(1413) 전후에 창건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후 여러 차례의 병란으로 인하여 크고 작은 중보수가 이루어졌으나 6 · 25전쟁으로 다시 소실되었다.

_이에 관내 유림들의 주관으로 국가 지원과 유림 성금을 모아 대성전과 명륜당을 복원하였고 1973년에 수복실守僕室을 건립하고 1976년에는 홍살문을 설치하였다.

_1980년에 향교 진입로 공사와 주변 정화작업을 완료하였고 1985년에 지방비 지원으로 대성전과 명륜당을 중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_경내에는 대성전, 명륜당, 외삼문, 홍살문이 있으며 대성전 규모는 정면 8.4m, 측면 4.65m로 익공계 양식의 겹처마에 맞배지붕 구조이며 양쪽 측면에 방풍판이 달려 있다.

_명륜당은 정면 6.5m, 측면 4.5m 규모로 연등천장에 민도리집으로 홑처마에 팔작지붕 형태를 띠고 있다.

5. 자운서원

○기본 현황

소재지 :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산5-1

건축물 현황 : 서원 본전, 내삼문, 강당, 동재, 서재, 외삼문, 협문

경내 문화재 : 자운서원(경기도 기념물 제45호-1973. 7. 10.)
이이 선생 묘(경기도 기념물 제15호-1973. 7. 10.)
신사임당 묘(경기도 기념물 제14호-1973. 7. 10.)
자운서원 묘정비(경기도 유형문화재 제77호-1978. 10. 10.)
이이 선생 신도비(파주시 향토유적 제6호-1986. 4. 17.)
부속 시설물 : 경기도 율곡 교육연수원, 율곡기념관, 관리사무소, 매점
건축 규모 : 서원 본전 정면 3칸, 측면 3칸
강당 전면 3칸, 측면 2칸

○서원 연혁


자운서원

_자운서원은 1615년(광해군 7) 법원읍 가야리 호명산 아래에 율곡서원栗谷書院으로 창건하고 율곡 이이 선생과 휴암 백인걸 선생을 제향하였다.

_1650년(효종 1) 휴암 백인걸 선생의 증손인 백홍우白弘佑의 상소로 자운서원紫雲書院이라 사액賜額을 받았으며, 1683년(숙종 9) 휴암 백인걸 선생을 파평면 늘노리 파산서원으로 이배移配하였고, 1686년(숙종 12) 현재의 위치인 법원읍 동문리 율곡 선생의 묘역이 위치한 곳으로 서원을 창건하고 위패를 이안하게 되었다.

_이후 1696년(숙종 22) 현석玄石 박세채朴世采 선생과 1715년(숙종 41)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 선생을 추가로 배향하였다.

_1868년(고종 5)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해 훼철된 후 1907년 관내 유림 노진섭盧震燮, 김한순金漢純 등에 의해 설단 봉사하게 되었으며, 1968년 유림들의 진정으로 국가보조 지원을 받아 사당 건물을 재건하였다.

_1973년 7월 10일 서원 본전 건물이 경기도 기념물 제45호로 지정되면서 경

내 주변을 정화하였고, 1986년에는 서원 경내 인근에 경기도 율곡 교육연수원이 건립되었다.

_2000년 서원 본전 건물 아래로 강당과 동재, 서재 건물을 신축하고 담장과 외삼문을 건축하여 일반적 서원의 건축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_서원 경내의 건축물로는 서원 본전 건물인 사당이 맨 위에 자리 잡고 있으며 내삼문 아래로 최근 신축한 강당과 동, 서재 건물이 위치한 전학후묘의 배치 형태를 갖추고 있다.

_서원 본전 건물인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건축물로 사당 내부에는 율곡 이이 선생의 영정을 중앙에 모셔 주벽으로 삼았으며, 좌우로 김장생과 박세채 선생의 위패를 모셨다.

_자운서원이 위치한 경내 구역은 서원 공간과 묘역 공간으로 크게 나뉘는데, 서원 공간 우측 능선에 자리 잡은 묘역 공간에는 율곡 선생을 비롯한 아버지 이원수와 어머니 신사임당 묘 등 가족묘 13기가 분포하고 있다.

_경내에는 서원 건축물 이외에 내삼문 밖 우측에 자운서원의 건립 내력을 적은 자운서원 묘정비가 건립되어 있으며, 경내 입구 좌측 능선에는 율곡 이이 선생 신도비가 위치해 있다. 부속 시설로 율곡기념관과 관리사무소, 매점 등이 경내에 위치해 있다.

○제향 인물 : 율곡 이이, 사계 김장생, 현석 박세채

○제향일 : 매년 음력 8월 중정일中丁日

※1996년부터 매년 10월경에 개최되는 율곡문화제 행사 시 추향제례 봉행

6. 파산서원

○기본 현황

소재지 : 파주시 파평면 늘노리 235

문화재 지정 :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10호

문화재 지정 연월일 : 1983년 9월 19일
시대 : 조선 중기 선조 1년(1568)
소유자 : 파산서원 유림
건축물 구조 : 목조와즙
건축물 현황 : 본전, 삼문, 찰륜당(재실), 재직사, 홍살문, 하마비 등
건축 규모 : 서원 본전 정면 3칸, 측면 2칸
재실 전면 3칸, 측면 2칸

○서원 연혁

_파산서원坡山書院은 1568년(선조 1) 율곡 이이 선생의 주창으로 청송서원廳松書院으로 창건되어 청송 성수침成守琛을 제향하여 오던 중 1592년 발발한 임진왜란으로 건물이 모두 전소되었다.


파산서원

_이후 1611년(광해군 3)에 영천靈川 신응거申應渠, 월사月沙 이정구李廷龜, 추탄楸灘 오윤겸吳允謙, 추포秋浦 황신黃愼, 수몽守夢 정엽鄭曄 등 5인의 발의로 재건하였으며 1628년(인조 6) 우계牛溪 성혼成渾 선생을 추가로 배향하였다.

_1650년(효종 1) 백홍우의 상소로 파산서원으로 사액賜額을 받았으며, 그후 1683년(숙종 9) 휴암休庵 백인걸白仁傑 선생을 추가 배향하였고, 1681년(숙종 20) 성혼 선생을 복향復享한 이유로 2차 사액을 받게 되었다.

_1740년(영조 16)에 와서 절효節孝 성수종成守琮 선생을 추가 배향하여 모두 4위를 배향하게 되었다.

_파산서원은 창건 이후 조선 후기 석초石樵 조형규趙衡奎 선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인물을 배출하였다. 특히,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불구하고 철폐되지 않은 전국의 서원, 사우 47개에 포함되어 있어 그 역사적 의미가 크다.

_6 · 25전쟁으로 건물이 모두 소실된 후 1962년 2월 20일 서원 복설을 위한 유림총회를 개최하고 도유사 신용직愼鏞稷을 선출, 각 면별 장의를 구성하였으나 재정 여건으로 복설을 미루었다. 1966년 6월 10일 도유사 이열택李烈澤의 주도로 각 장의의 협조와 유림의 성원을 얻어 서원 위토 일부를 매각 총 480만 원을 들여 서원 본전 6칸을 중건하고 10여 년 만에 제향을 재개하게 되었다.

_재실齋室과 재직사齋直舍가 없어 큰 불편을 느껴오던 중, 1976년 도유사 박응서朴應緖의 주도로 유림들의 성금을 모으고 서울에서 철거되는 조선시대의 가옥을 무상으로 받아 총 400만 원을 들여 재실인 찰륜당 8칸과 재직사를 건축하였다.

_1986년 지방비 보조로 서원 본전 주위 담장을 개수하였으며, 1999년 수해로 재실 찰륜당 건물이 소실되어 2001년 중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제향 인물 : 청송 성수침, 휴암 백인걸, 우계 성혼, 절효 성수종

○제향일 : 매년 음력 2월 중정일

7. 용주서원

○기본 현황

소재지: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298

건축물 현황 : 본전, 정륜당, 내삼문, 외삼문, 관리사, 홍살문, 유허비 등

건축 규모 : 서원 본전 정면 7.5m, 측면 5.2m의 6칸 규모

정륜당 전면 3칸, 측면 2칸

○서원 연혁

_용주서원은 휴암 백인걸 선생이 관직에서 물러난 후 학문과 후진 양성에 전념했던 옛 집터에 1598년(선조 31) 지방 유림들이 서원을 세우고 사당을 지어 위패를 모신 것이 시초이다.

_그후 유생 정재심鄭在心이 사액을 청했으나 실패하고 철폐되었으며, 그 자리에 휴암 선생 유허비만 남아 있다가 1924년 유생들이 다시 뜻을 모아 서원을 복원하고 백인걸 선생 외에 그의 문인이었던 장포長浦 김행金行, 옥천玉川 조감趙堪, 낙금당樂琴堂 신제현愼齊賢, 당산堂山 백유함白惟咸 선생 등 5인의 위패를 모시고 제향하고 있다.



용주서원

_1986년 4월 17일 파주시 향토유적 제1호로 지정되었으며 1997년 개축한 5칸 규모의 정륜당과 사당, 내 · 외삼문, 홍살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내의 건물 주위로 담장을 둘렀다. 외삼문 밖 오른쪽으로는 관리사 건물이 있는데 2004년 새로 신축하였다.

_내삼문 밖 오른쪽에는 천연석을 기단으로 한 휴암 선생 유허비가 세워져 있는데 휴암 선생의 집터임을 알려주는 이 화강석 비는 1862년(철종 13)에 세워졌다.

_5위의 신위를 모신 사당 건물은 홑처마에 맞배지붕 건물로 정면 7.5m, 측면 5.2m의 6칸 규모의 건축물이다.

○제향 인물 : 휴암 백인걸, 장포 김행, 옥천 조감, 낙금당 신제현, 당산 백유함
○제향일 : 매년 음력 9월 9일

8. 성사영묘

○기본 현황
소재지 :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127

○연혁

_성사영묘聖師影廟는 공자의 유상遺像을 모신 사우로, 이곳에 모신 공자의 영정은 조선 제9대 임금인 성종成宗이 명나라 황제 헌종으로부터 받아 넷째 아들인 완원군完原君 이수李燧(1480~1509)에게 하사한 것이다.

_이 유상은 완원군 종가로 전해오다가 15대손인 이종구李宗九 때(1917)에 이르러 영묘를 창건하고 제향을 위한 위토도 마련하였다.

_1956년에 건물이 퇴락하여 중수한 바 있고, 1985년에는 광탄면민들의 성금으로 중건하였다.

○제향 인물 : 공자

○제향일 : 음력 8월 27일

9. 여충사



여충사

○기본 현황

소재지 :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연혁

_여충사麗忠祠는 윤관 장군 제향처로 윤관의 영정을 봉안하는 곳이다.

_파평 윤씨 대종회에서 1932년 함경남도 서천瑞川의 정북사靖北祠에 분수영당汾水影堂으로 창건한 이래 탄신일을 제향일로 삼았다.

_1974년에 묘역 정화사업 후 이름을 여충사로 바꾸고 파주 유림제사로 지내고 있다.

○제향 인물 : 윤관

○제향일 : 음력 3월 10일



방촌영당

10. 방촌영당

○기본 현황

소재지 :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 산 121

1976년 8월 27일 경기도 기념물 제29호로 지정

○연혁

_방촌厖村 황희黃喜(1363~1452) 선생의 5세손 황돈黃惇이 선생의 유업을 기리기 위해 1580년에 경상북도 상주시 중모면 수봉리에 영정당影幀堂을 짓고 영정을 모셔 제사를 지내오다가, 1632년에 7세손 황수黃修가 영정을 모사하여 선생이 노닐던 반구정 아래에 영정각을 만들고 호를 따라 방촌영당厖村影堂이라고 하였다.

○제향 인물 : 황희

○제향일 : 음력 2월 10일

11. 장포영정각

○기본 현황

소재지 :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341

○연혁

_장포長浦 김행金行(1532~1588)의 영정을 모시고 향사하는 곳이다.

_장포 선생의 영정은 종가에서 대대로 보관하다가 16세손 김덕래金德來의 주선으로 1974년 8월에 문중에서 영정각을 창건하여 탄신일을 기해 향사하고 있다.

○제향 인물 : 김행

○제향일 : 음력 12월 20일

12. 월계단

○기본 현황

소재지 :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연혁

_월계단月桂壇은 사육신, 생육신과 함께 철퇴와 몽둥이를 맞고 쓰러진 황보인 등 절육신 6위位를 모시는 단이다.

_파주 유림 30여 명은 절육신의 뜻을 기리기 위해 1920년 6월 3일에 발기하여 설단을 하고 매년 향사를 받들어 오던 중 6 · 25전쟁으로 제사가 단절되었다가 1985년 12월 3일에 재발기하여 1986년 2월 21일 파주 애국지사유지 정화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월계단 영모회 임원을 배정하여 제향하고 있다.

○제향 인물 : 황보인皇甫仁, 김종서金宗瑞, 정분鄭苯, 김문기金文起, 민신閔伸, 조극관趙克寬

○제향일 : 음력 4월 1일

13. 경현단

○기본 현황

소재지 : 파주시 파평면 늘노리 235 파산서원 내

○연혁

_경현단景賢壇은 휴암 백인걸 선생의 사위 옥천 조감과 옥천의 사위이며 우계 선생의 아들 창랑滄浪 성문준成文濬, 창랑의 사위 화당化堂 신민일申敏一을 모신 단으로 1807년에 설단하였다.



경현단

○제향 인물 : 조감, 성문준, 신민일

○제향일 : 음력 2월 중정일

14. 동현단

○기본 현황

소재지 : 파주시 법원읍 오현리 269

○서원 연혁

_파주와 양주 유생들이 인목대비 폐출에 반대 상소를 올렸던 석호石湖 양진룡梁震龍(1581~1647) 선생을 기리기 위해 그가 은거한 옛터에 단을 만들어 봉사해 오다가 1963년에 존심재存心齋 윤면오尹冕五(1857~1921) 선생과 정와靜窩 노진섭盧震燮(1846~1910) 선생을 추배하면서 동현단東峴壇이라고 개칭하였다.

○제향 인물 : 양진용, 윤면오, 노진섭

○제향일 : 음력 8월 말정일末丁日

파주의 유교제향 현황

구분		소재지	제향 인물	제향일	비고
향교	파주향교	파주읍 파주리	오성위五聖位 외 20인	음력 2월, 8월 초정일	
	교하향교	금능동	〃	음력 8월 27일	
	적성향교	적성면 구읍리	〃	음력 2월, 8월 초정일	
	장단향교	군내면 읍내리	〃	※임란 때 소실 후 복원, 6·25전쟁으로 재소실 미복원	
서원	파산서원	파평면 늘노리	성수침, 백인걸, 성혼, 성수종	음력 2월 중정일	
	자운서원	법원읍 동문리	이이, 김장생, 박세채	음력 8월 중정일	
	용주서원	월롱면 덕은리	백인걸, 김행, 조감, 신제현, 백유함	음력 9월 9일	
	신곡서원	금능동	윤선거	※훼철령으로 철폐 후 미복원	
사우	성사영묘	광탄면 마장리	공자	음력 8월 27일	
	여충사	광탄면 분수리	윤관	음력 3월 10일	
	방촌영당	문산읍 사목리	황희	음력 2월 10일	
	장포영정각	문산읍 내포리	김행	음력 12월 20일	
	월계단	법원읍 동문리	황보인, 김종서, 정분, 김문기, 민신, 조극관	음력 4월 1일	
	경현단	파평면 늘노리	조감, 성문준, 신민일	음력 2월 중정일	
	동현단	법원읍 오현리	양진룡, 윤면오, 노진섭	음력 8월 말정일	

유교제향의 실제

2008년에 행해졌던 향교 대제, 서원 · 사우 제향 절차를 사진을 통해 알아본다.

1. 향교 대제

○파주향교



1. 헌관 관수



2. 초헌례



3. 아헌례



4. 음복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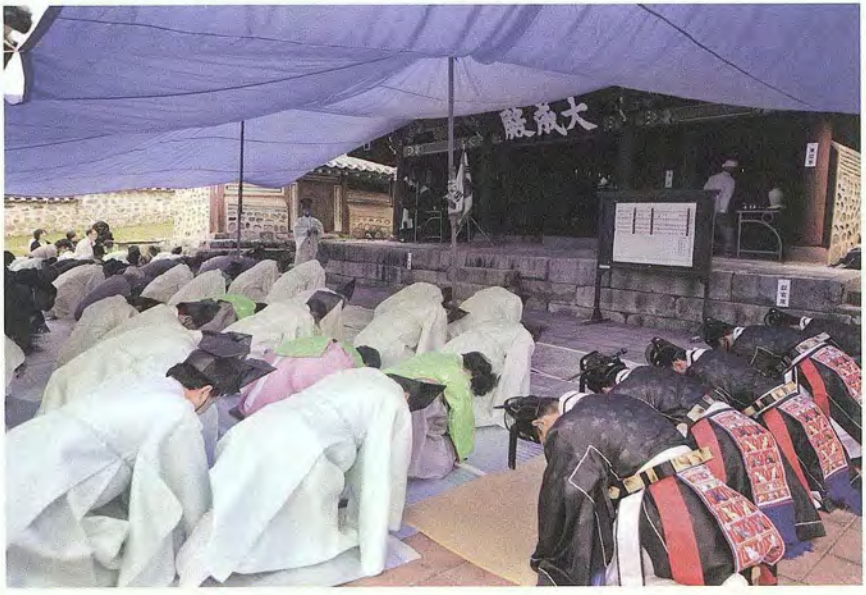


6. 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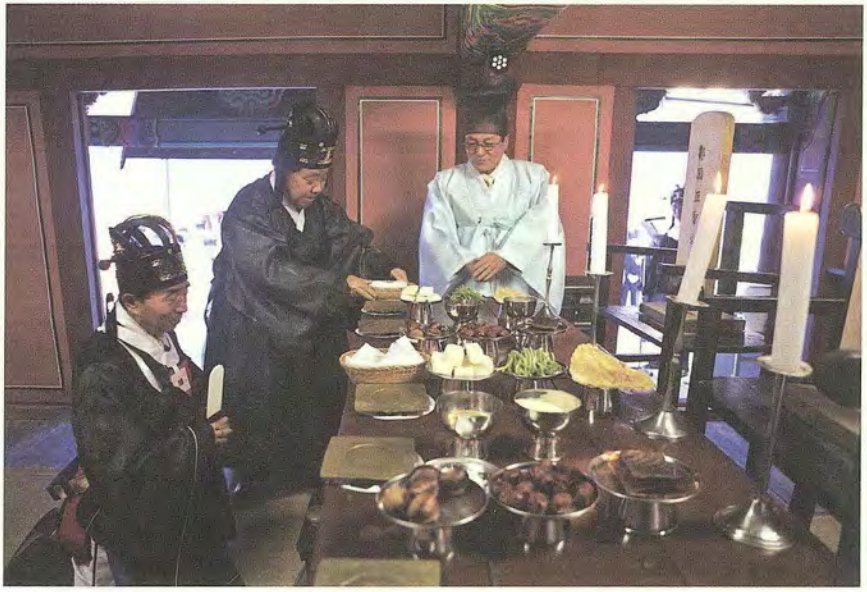


5. 합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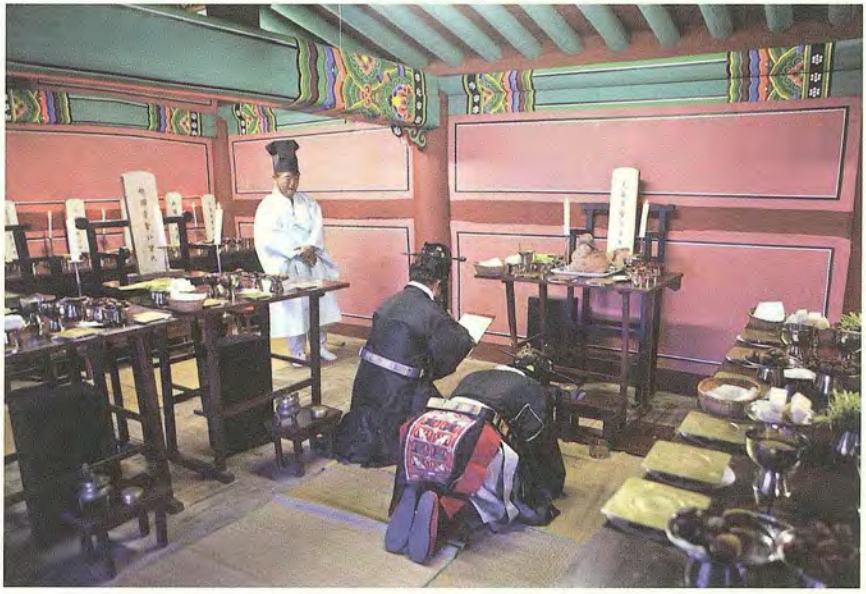
○교하향교



1. 일동 부복



2. 전폐례



3. 독축

○적성향교



1. 삼상향



2. 독축 중 일동 부복



3. 봉작 전작



4. 종헌례

2. 서원 제향

○파산서원



1. 개독



2. 사준 작주



3. 초헌례

○자운서원



1. 추향제 준비



2. 각취위



3. 초헌례

○용주서원



1. 거안



2. 일동 재배



3. 초헌관 전폐례



4. 초헌례



5. 독축



6. 독축 시 일동 부복



7. 아헌례



8. 종헌례



9. 음복례



10. 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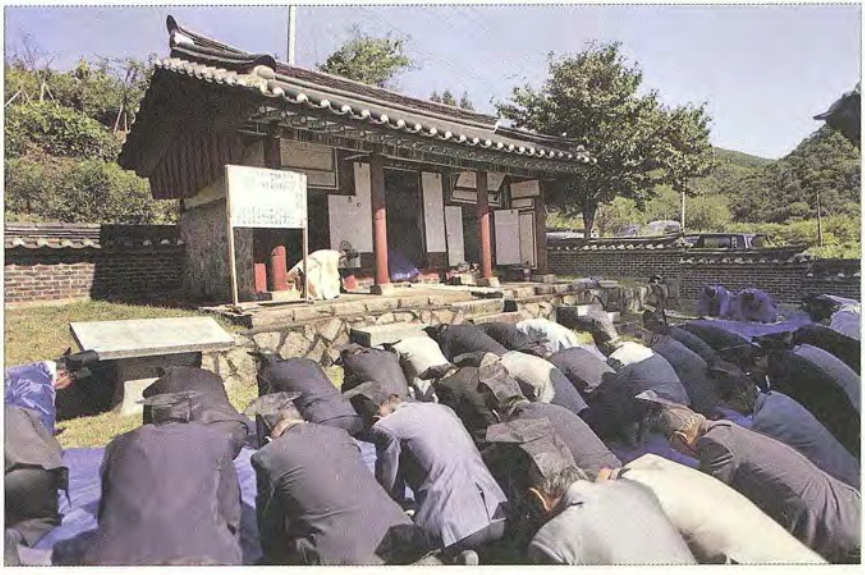
11. 행례 후 음복

3. 사우 제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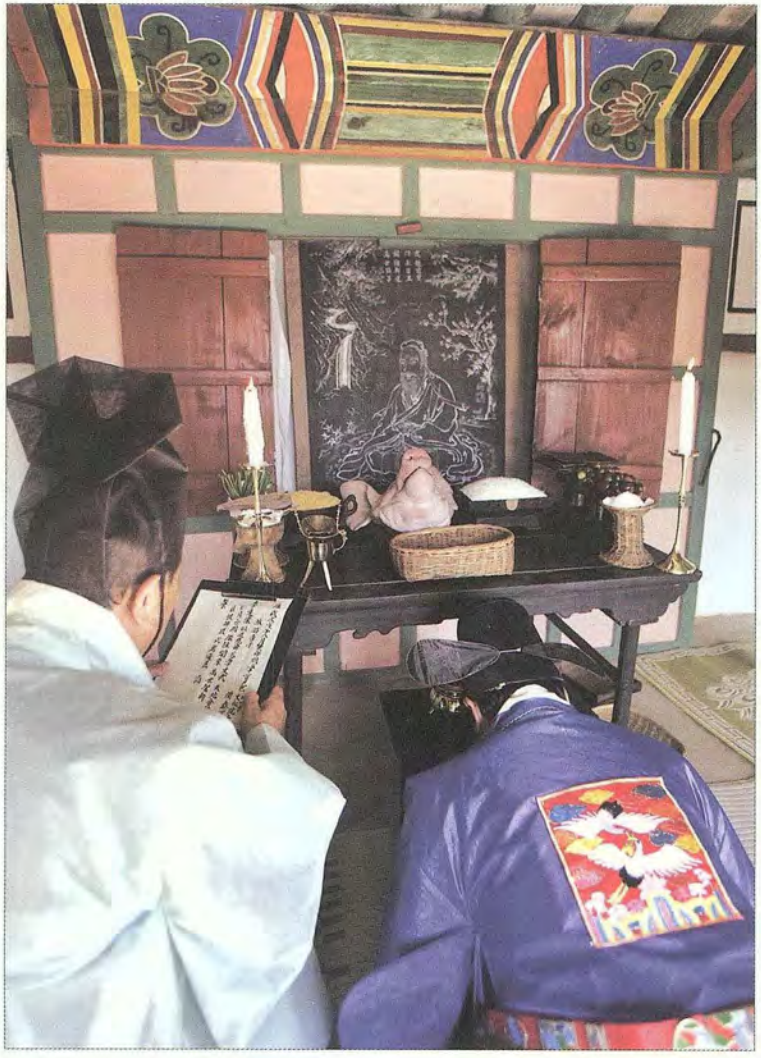
○성사영묘



1. 전폐례



3. 독축 중 일동 부복



2. 독축

○여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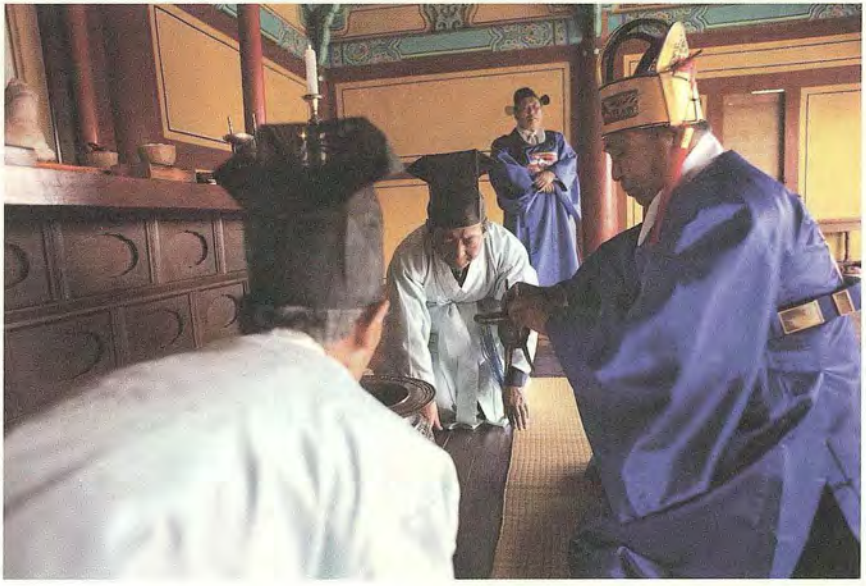
1. 전폐례



2. 초헌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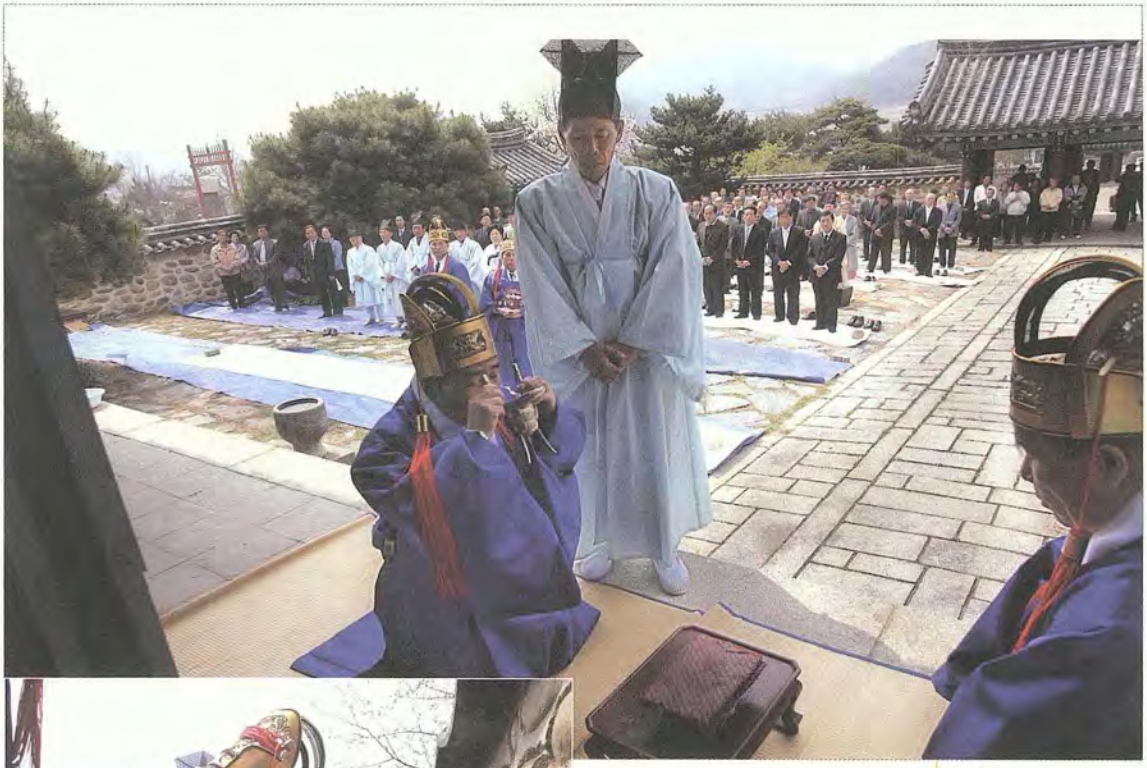
3. 독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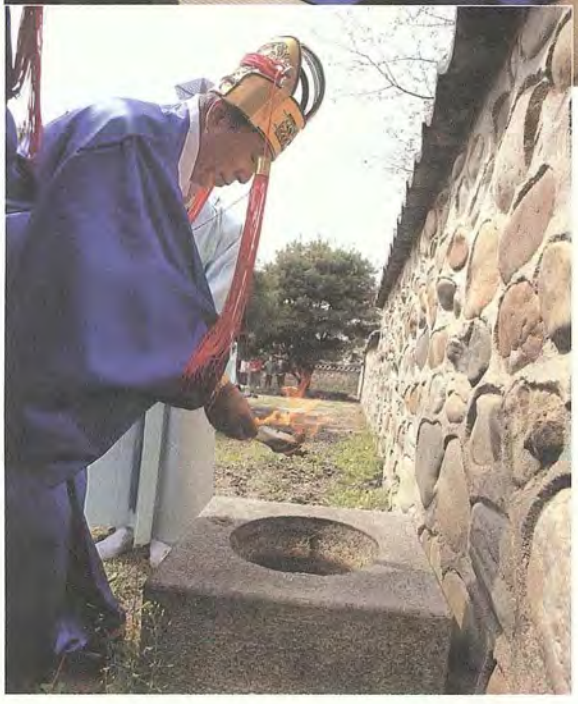
4. 아헌례



5. 종헌례



6. 음복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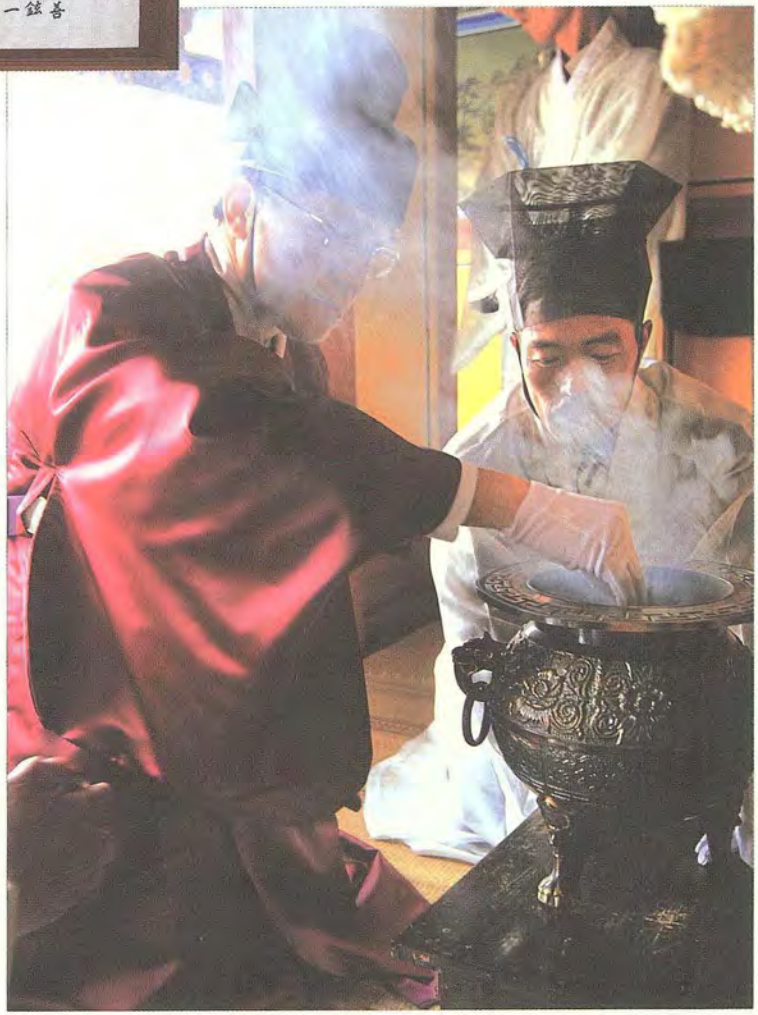


7. 분축

○방촌영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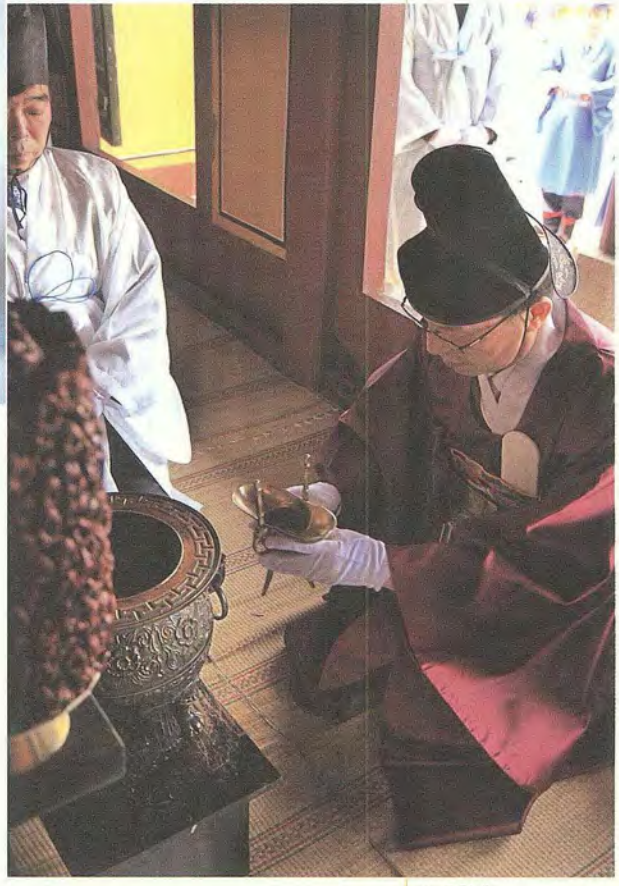
1. 거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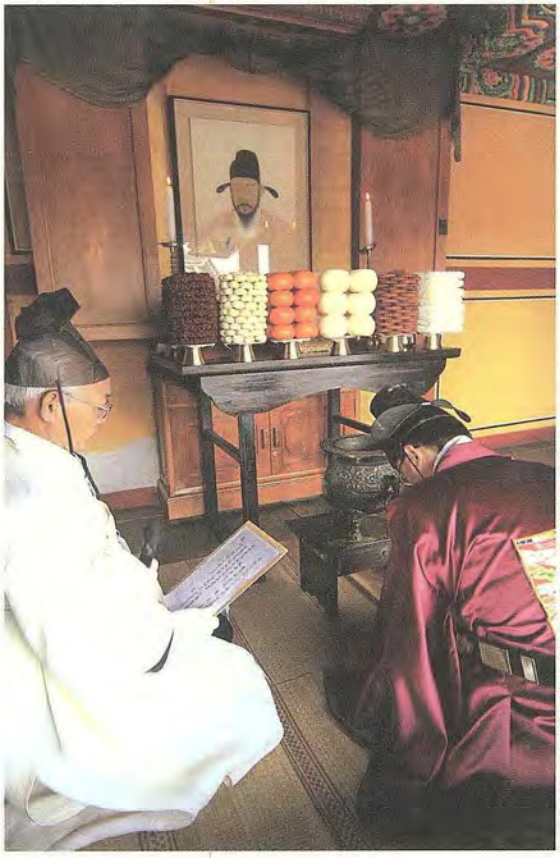
2. 초헌관 삼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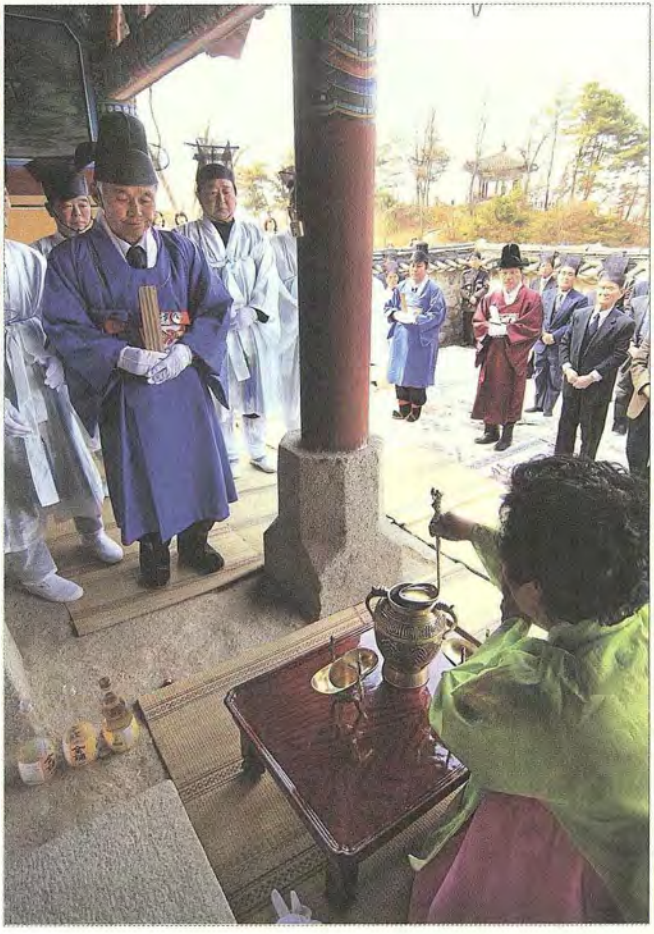
3. 전폐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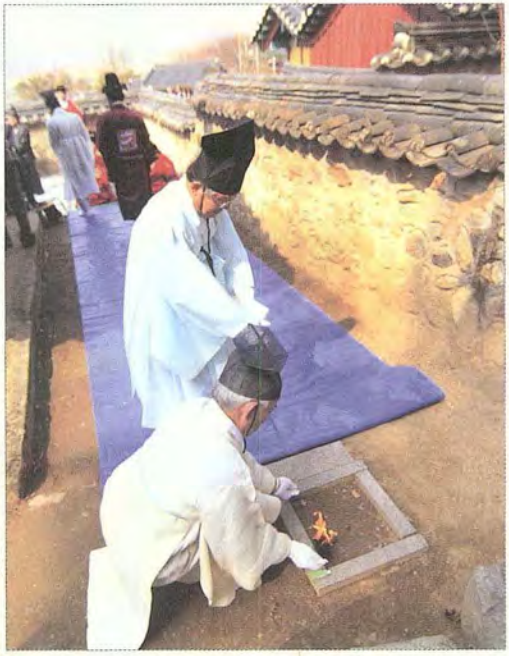
4. 초헌례



5. 독축



6. 아헌례 사준 전작



8. 분축



7. 종헌례

○월계단



1. 초헌관 삼상향

2. 독축



○경현단



1. 삼상향



2. 전폐례



3. 초헌례



4. 독축 중 부복



5. 음복례

○동현단



1. 전폐례



2. 초헌례

기독교

윤용복_종교문화연구소 연구위원

파주의 기독교 현황

파주 지역에 천주교가 처음 전파된 것은 19세기 말이다. 1898년 법원읍 갈곡리에 공소가 생기면서 처음으로 천주교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1963년에는 법원리에 파주 지역 최초의 본당이 생겨났다. 이후 신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본당이 생겨나게 되어 2008년 현재 파주의 천주교 본당은 모두 7개가 되었다. 이들 본당은 모두 과거 서울대교구 소속이었다가 2004년 의정부교구가 신설되면서 의정부교구 소속이 되었다. 참고로 의정부교구는 모두 8개 지구로 나뉘어 있는데, 파주 지역은 8지구에 속하며 금촌 본당을 지구의 대표 본당인 지구좌 본당으로 하고 있다. 파주 지역 전체의 천주교인 숫자는 대략 1만 5000여 명에 달한다.

천주교가 100여 년 앞서 한국 사회에 들어왔지만, 파주 지역에는 천주교와 개신교가 서로 비슷한 시기에 전래되었다. 천주교가 파주에 자리를 잡아갈 무렵인 1901년, 조리읍 대원리 지역에서 이순호가 전도 활동을 하면서 파주 개신교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그것이 바로 현재 대원교회의 출발이다. 같은 해 문산리에도

최덕준에 의해 개신교가 전파되어 문산교회가 설립되었다. 1907년에는 금촌2동에 금촌장로교회(현 비저니아교회), 그리고 탄현면 갈현리에 갈현교회가 건립되면서 지역별로 교회가 생겨났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교회들이 생겨났지만, 1950년대의 6 · 25전쟁 직후 생겨난 교회가 하나의 발전기를 이루게 되었다. 위의 교회들 이외에도 파주에는 봉일천의 봉일천 장로교회, 봉일천 감리교회, 금촌2동의 금촌중앙 침례교회, 문산리의 문산 침례교회, 광탄면 신산리의 광탄순복음교회, 문산읍 운천리의 마정교회, 조리읍 대원리의 하나로 중앙교회 등 일일이 그 이름을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교회들이 있다. 위에 언급한 교회 외에 대략 300여 개의 교회들이 파주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신앙을 전파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현재 오두산 통일전망대 뒤편의 탄현면 성동리에는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염원하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참회와 속죄의 성당' 및 '민족화해센터'가 서울대교구에 의해 건립되고 있다. 또한 성동리와 법흥리를 중심으로 통일을 기원하고 그에 대비하기 위해 몇몇 개신교회가 활동하고 있다.



마정교회 전경

파주의 천주교

천주교가 한국에 처음 전래된 것은 18세기 후반이다. 1779년부터 정약용, 정약전, 이승훈 등의 젊은 지식인들이 주어사와 천진암 등을 오가며 중국을 통해 들어온 천주교 서적을 놓고 함께 강학을 하면서 한국의 천주교는 시작되었다. 1784년에는 이승훈이 중국 북경의 북당에서 영세를 받고 돌아와서 이벽, 정약전

등과 함께 신앙 공동체를 구성하면서 공식적인 종교 모임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약 100여 년 가까이 천주교는 조선 사회에서 극심한 탄압을 받게 된다.

1785년, 천주교 집회를 하던 현장이 발각되어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체포되는 을사추조 적발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체포된 사람들 가운데 양반층은 대부분 풀려나고 중인인 김범우가 처형당하면서 최초의 한국인 순교자가 되었다. 뒤이어 윤지충과 권상연이 신주를 불사르고 조상의 제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처형당한 1791년의 신해박해(일명 진산사건), 1801년의 신유박해와 1839년의 기해박해, 그리고 1846년의 병오박해, 1866년의 병인박해 등 여러 차례의 박해가 계속해서 발생하였다.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죽음을 당하였기에 신유, 기해, 병오, 병인박해를 4대 박해라고도 부른다. 특히 병인박해는 1866년부터 1871년까지 지속되었으며, 무려 8000여 명에 이르는 순교자가 발생한 최대의 박해 사건이었다. 이러한 박해를 통해 죽음을 당한 순교자들 가운데, 프랑스 선교사를 포함한 103명은 1984년 5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성인의 반열에 오른다.

이러한 박해 와중에서도 1831년 로마교황청은 파리외방 전교회에 한국의 선교를 담당하도록 요청하였고, 파리외방 전교회의 브뤼기에르 신부가 선교를 자원하면서 조선 교구가 설정되게 된다. 그리하여 브뤼기에르 신부는 초대 조선교구장이 되었다.

천주교에 대한 공식적인 박해는 1886년 한불조약으로 사라지게 되지만, 이후에도 천주교는 각 지방에서 지방 수령, 또는 토호들과 여러 차례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충돌은 20세기에 접어들면서 공식적으로 자취를 감추지만 일제강점 시기에는 또다시 일제에 의한 압박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일제 강점기 한국의 거의 모든 종교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해방 이후에는 그때까지 한국의 교구에 속해 있던 북한 지역과 연길 지역이 모두 공산화됨으로써 한국 천주교와 단절되고, 남한만의 천주교로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다. 1962년에는 한국 천주교에 교계 제도가 설정되어 이제까지 교황청의 지도와 지원을 받던 것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립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

다. 이후 한국 천주교는 발전을 거듭하여 교계 제도 설정 당시인 1962년 53만여 명이었던 신자 수가 2007년 현재 480만여 명에 달하게 되었다.

파주 지역에 천주교는 전래 초기 탄압을 받던 때에 이미 들어온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명확하지 않다. 현재 천주교 공동체가 형성된 지역으로 파주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곳은 파주시 법원읍 갈곡리에 위치한 갈곡리(칠울 또는 칡울)공소로 알려져 있다. 갈곡리공소의 유래는 조선 후기 천주교 박해를 피해 산골 마을로 떠돌던 김근배, 김연배, 그리고 박 베드로 등이 이곳에 이주하면서 시작된다. 김근배는 원래 충청도 분수원에서 살다가 어머니와 함께 양주 광적면 우골로 이사해 왔다. 이 집안은 대대로 옹기그릇을 만들었는데, 양주 우골의 흙이 좋은 데다 탄압도 피할 겸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갈곡리에서도 계속 우골의 흙을 갖다 쓸 정도였다.



갈곡리공소 전경

파주 지역에 온전한 하나의 천주교 공동체가 형성된 것은 갈곡리공소가 약현 본당 소속이 된 1898년이었다. 이후 개성 본당, 신암리 본당, 덕정리 본당(현 의정부2동 본당) 등 새로운 본당들이 속속 생겨나면서 갈곡리공소의 소속도 달라졌다. 1958년에는 갈곡리공소에 속해 있던 법원리에 의정부 본당 소속 법원리공소가 새로 생겨났고, 법원리공소를 기반으로 1963년 파주 지역 최초로 법원리 본당이 생겨났다. 그리하여 최초의 공소였던 갈곡리공소는 법원리 본당 관할이 되었다. 이어서 1973년에는 문산 본당이 새로 생겨났으며, 1978년 금촌 본당, 1996년 적성 본당, 1999년 봉일천 본당, 2004년 운정 본당, 그리고 2005년 금촌2동 본당이 생겨났다.

파주 지역 천주교 본당들이 모두 의정부 교구 8지구에 속해 있지만, 파주 지역 천주교도만의 연합활동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며, 각 본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과 사회복지활동 등을 실천하고 있다. 각 본당의 운영 구조는 대체로 비슷하지만, 본당의 규모나 지역적 특색, 또는 본당 주임 신부의 운영 방침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파주 지역 지구좌 성당인 금촌성당의 출발은 1953년 금촌공소로부터 비롯된다. 금촌공소는 25년 동안 공소라는 공동체를 형성하며 신앙생활을 하다가 1978년 금촌 본당으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른다. 소규모로 출발했던 금촌 본당은 새로운 인구의 유입과 함께 신자 수가 증가하면서 그 규모가 점차 커지게 되자 1999년에는 봉일천 본당을 분리 신설하였고, 2005년에는 금촌2동 본당이 분리되어 나갔다. 처음 본당의 홀로서기에 힘을 쏟았던 금촌 본당은 1998년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나 불우이웃을 돕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는 파주자활후견 기관으로서 자활지원 사업도 벌이고 있다.

본당의 조직은 사목협의회를 중심으로 이웃돕기 모임인 빈첸시오회, 60세 이상 남녀 노인들의 모임인 요셉회와 안나회, 그리고 청년연합회, 자모회,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을 위한 연령회와 선종봉사단, 예비 성직자들의 계발과 육성을 위한 성소후원회가 조직되어 있다. 이외에 기도 모임인 레지오 마리애가 있는데, 희망의 모후라는 꾸리아 그리고 23개 쁘레시디움으로 되어 있으며, 성령 기도회와 그룹 성서 모임, 울뜨레아 등의 신심 단체들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자 수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 2446명이며, 위치는 금촌역 맞은편의 금촌동 329-37번지에 있다.

법원읍 법원리에 위치한 파주 지역 최초의 본당인 법원리 본당은 1997년 8월 문화센터를 개설하여 신자 및 지역민을 대상으로 문화 강좌를 실시해 왔다. 음악, 무용, 건강 교실, 미술 등의 강좌를 개설하여 신자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도 문화 접촉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또한 법원리 본당은 1996년부터 인근 군부대의 장병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처음에는 점심식사를 제공받는 장병들이 채 10여 명도 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평균 50~60여 명 정도이고, 부활절이나 성탄절과 같은 때는 100여 명의 장병들이 이용하고 있다.

법원리 본당이 이러한 행사를 하게 된 이유는 지역적 특성상 주변에 군부대가 많기 때문이다. 식사 제공은 법원리 본당의 7개 구역이 매주 번갈아가면서 담당하고 있다. 이외에 법원리 본당은 1966년부터 소하유치원을 설립, 운영하면서

일찍이 이 지역 미취학 아동교육의 한 축을 맡아왔다. 이 유치원에서는 100여 명의 어린이가 4명의 교사의 지도 아래 교육을 받고 있다.

본당 공동체의 구성은 사목협의회를 중심으로 7개 구역 22개 반으로 되어 있으며, 반장회, 대건회, 요셉회, 연령회, 레지오 마리애의 6개 쁘레시디움, 주일학교 교사회, 주일학교 자모회, 안나회, 복사단 등의 평신도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신자 수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 1086명이고, 산하 공소로는 갈곡리공소와 주내공소가 있다.



법원리성당 전경

문산읍 문산리에 위치한 문산 본당은 파주 지역에서 두 번째로 생겨난 본당으로 1973년 일산 본당으로부터 분리되어 설립되었다. 문산 본당의 모태는 1962년 설립된 문산공소이다. 문산 본당은 본당 사목협의회를 중심으로 여러 평신도 단체들을 조직하여 신앙생활과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목협의회를 중심으로 현재 문산 본당에 조직된 평신도 단체로는 레지오 마리애의 1개 꾸리아와 7개 쁘레시디움이 있으며, 구역장 및 반장회, 연령회, 성가대, 울뜨레야, 안나회 등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본당 내에 전문 도서실을 마련하여 건전한 영상매체와 서적을 대여함으로써 본당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다. 문산 본당의 신자 수는 2007년 12월 현재 1894명이다.

1996년 설립된 적성 본당은 법원리 본당 소속 마지리공소가 출발점이다. 1973년에 문산 본당이 설립되자 문산 본당 소속으로 되었다가 1993년 본당이 되었다. 지역적 특성상 신자들의 대부분은 농업과 축산업에 종사하고 그외에 상업에 종사하는 신자들도 분포하고 있다. 신자 수나 본당의 규모면에서 다른 본당들에 비해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심 단체의 활동도 다른 본당보다 작은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당의 조직은 사목협의회를 중심으로 3개 구역 10반으로 되어 있다.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는 연령회, 자모회, 요셉회가 있고 4개 단체의 레지오 마리애가 있다. 적성면 구읍리에 위치한 적성 본당의 신자 수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 547명이며, 산하공소로는 장파공소와 백학공소가 있는데, 장파공소는 파평면 장파리에 그리고 백학공소는 연천군 백학면에 위치하고 있다.

이외에 봉일천 본당은 조리읍 봉일천리에 위치해 있으며 신자 수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 2291명이고, 운정 본당은 교하읍 다율리에 있으며 신자 수는 4365명으로 파주 지역 성당 가운데 가장 많은 신자가 있다. 마지막으로 금촌2동에 있는 금촌2동 본당에는 1887명의 신자가 있다.

각 본당 모두 사목협의회가 조직되어 있고 여러 신심 단체들도 활동하고 있는데, 사목협의회의는 사목회장을 중심으로 총무분과, 기획분과, 전례분과, 교육분과, 선교분과, 청소년분과 등으로 구성되어 본당 신부의 사목 활동을 돕는 구조인데, 각 본당마다 다소간의 차이는 있다.

본당에서 신자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미사이다. 각 본당은 모두 매일 아침 혹은 저녁에 미사를 드리고 있으며, 본당의 규모나 형편에 따라 일요일에는 여러 차례의 미사를 드리기도 한다. 파주 지역에 있는 4개의 공소에는 신부가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매주 미사를 드리지 못하고, 매월 한 차례의 미사를 드린다. 각 공소와 성당이 비어 있어 비록 미사는 보지 못하지만 신자들이 모여 단체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는 있다.

매주 일요일의 미사는 천주교 신자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전례이다. 따라서 일요일의 미사에는 많은 신자들이 참여한다. 아침 6시에 하는 새벽미사도 있지만, 이는 급한 일이 있거나 개인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참가하는 시간으로 많은 신자들이 모이지는 않는다. 또한 본당의 사정에 따라 청소년이나 어린이 미사 시간을 별도로 두어 전례를 행한다. 그렇지만 일요일 미사의 중심적 위치는 아무래도 모든 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중미사일 것이다. 오전 10시 30분에 미사를 시작하는 적성 본당을 제외하면, 파주 지역의 모든 본당은 오전 11시 미사를 교중미사로 드리고 있으며, 이 미사에는 가장 많은 신자들이 참여한다.

일례로 파주의 지구좌 본당인 금촌 본당의 교중미사는 11시에 시작한다. 10시쯤부터 신자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여 안면 있는 신자들과 인사를 하고 성당으로 들어가서 미사를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한다. 또한 각 분과나 단체와 관련

된 신자들은 그 분과나 단체의 일요일 행사나 모임을 위해 사무실에 들르거나 회원들과 의견 교환을 한다. 10시 30분경이면 노란 어깨띠를 두른 3~4명의 신자들이 성당 입구의 차량을 정리하며 신자들을 성당으로 인도한다. 성당 입구의 한쪽편에는 성모회나 연령회, 레지오 단체 등에서 기금 모금을 위해 준비한 소규모 바자회, 또는 단체 가입을 권유하는 데스크가 마련되어 있다. 성당 문을 들어서면 여성 신자들이 주보를 나누어주며 안내를 하고, 아담한 성당 안은 신자들이 앉을 수 있게 마련된 긴 의자가 반원형으로 맨 앞에 위치해 있는 제단을 향해 차례로 줄지어 놓여 있다. 입구의 오른편 뒤쪽에는 성가대원들의 좌석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11시가 되면 사제(주임 신부)가 제단으로 입장하며 미사가 시작되고, 순서대로 각 의례가 진행된다. 대략 1시간 전후면 미사가 끝나는데, 미사 후에는 신자들이 퇴장하며 신부와 수녀, 다른 신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집으로 향한다. 사목위원회 임원이나 각 단체의 장을 비롯한 일부 신자들은 남아서 뒷정리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 모여서 회합을 갖기도 한다. 이러한 모습들은 금촌 본당뿐 아니라 대부분의 본당에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본당의 사정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다.

본당과 달리 공소의 미사는 한 달에 한 번꼴로 돌아가면서 행해지며, 본당의 교중미사 시간을 피하기 위해 오전 일찍 하거나 오후에 행해진다. 일례로 파주 지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갈곡리공소의 경우 매월 둘째 주 오전 9시에 미사가 있다. 미사가 없는 다른 일요일에는 공소의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공소회장의 지도 아래 공동으로 공소 예절과 같은 주일 전례를 행하고 있다. 공소의 성당이 개방되어 있어서 신자들은 수시로 성당에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으며, 장파공소의 경우에도 사정은 비슷하다.

본당이 평신도 신앙생활의 중심이라면 수도회는 속세를 떠난 수도자들의 신앙생활을 담당하고 있다. 파주 지역에는 그리스도 수도회와 예수성심전교 수도회 수련소와 같은 남자 수도 단체가 있으며, 성심수녀회, 예수의 작은 자매들의 우애회, 프란치스코 전교봉사 수녀회 등의 여자 수도 단체가 있다. 이 가운데 그리스도 수도회는 문산읍 이천리에 '늘 푸른 자활의 집'이라는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관은 일정한 주거와 생업 수단이 없는 노숙인 및 부랑인들의 자활을 돕는 기관으로 이들의 치료와 사회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란치스코 전교봉사 수녀회는 교하읍 동패리에 결손 가정 미취학 아동보호 시설인 '성 보나의 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보성체 수도회는 파평면 장파1리에 '성체의 집'이라는 지역 아동센터를, 성모영보 수녀회는 광탄면 신산1리에 '시몬의 집'이라는 노인복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 금촌동에는 자활기관인 '파주 지역자활센터'가, 그리고 탄현면 축현1리에는 '프란치스코의 집'이라는 정신지체인 생활 시설이, 파평면에는 '성제의 집'이라는 무료급식소가 천주교 단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파주의 지역적 특성상 군부대 성당도 있다. 신산리의 전진 본당은 군인들을 위한 성당으로 군종 신부가 주임을 맡고 있다. 이 성당의 신자 수는 많지 않지만, 시간이 자유롭지 못한 군인들을 위한 성당이기 때문에 일반 본당과는 그 운영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미사의 경우 본당에서는 일요일 미사가 한 차례만 있고, 그 이외의 시간에는 각 지역 공소별로 매주 돌아가며 미사를 드리고 있다.

파주 지역은 현재 주택단지들이 새롭게 계속 조성되고 있어서 앞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서울 근교의 다른 신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의 천주교 인구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새로운 본당도 더 생겨날 전망이다.

파주의 개신교

개신교가 한국 사회에 처음 들어온 것은 19세기 후반이다. 1884년 서상륜이 황해도 송연에 예배당을 세우게 되는데, 이것이 한국 최초의 교회로 알려져 있다. 뒤이어 1887년에는 서울에 새문안교회가 설립되어 최초의 장로교회가 되었다. 특히 1882년 한미조약 이후 미국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부를 필두로 하여 캐

나다, 호주, 영국 등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었다. 1884년 입국한 미국 북장로교 소속 의료선교사인 알렌은 이듬해인 1885년 광혜원을 개원하여 의료선교의 길을 열었다. 또한 1885년에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와 북감리회 선교사 아펜젤러가 입국하였으며, 뒤이어 스크랜턴 모자가 입국하여 이화학당을 세웠다. 아펜젤러는 배재학당을 개교하여 교육사업을 통한 간접 선교를 시작하였다. 이후 이들에 의해 한국의 선교활동이 본격화되고 점차 교세가 증가하게 되었다.

장로교와 감리교파에 이어 1889년에는 침례교, 1891년에는 성공회, 1904년에는 안식교, 1907년에는 성결교, 그리고 1908년에는 구세군이 각기 선교활동을 개시하였다. 각 교파의 선교정책은 각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공통점도 지니고 있었다. 개신교의 선교는 직접적, 적극적 선교활동보다는 교육사업이나 의료사업 등을 통한 간접선교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천주교가 초기 전래 시에 많은 박해를 받았음을 고려해 취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개신교 전래 초기 파주 지역은 주로 장로교 선교사들이 선교를 담당하였다. 그 결과 이 지역에서 1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교회들은 모두 장로교 소속 교회이고, 또한 교회도 장로교 소속 교회가 압도적으로 많다. 파주 지역에서 1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로는 대원교회, 문산교회, 갈현교회, 비저니아교회 등이 있다. 파주 지역 기독교의 역사는 위의 교회들과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뒤를 이어 계속해서 많은 교회들이 설립되었으며, 50년 이상 된 교회들도 100여 개 이상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역사가 가장 오래된 위의 교회들 가운데 문산교회와 비저니아교회는 다른 두 교회와 달리 상대적으로 도시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앞으로 신자 수가 증가할 여지가 충분하고, 또한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대원교회나 갈현교회는 주변이 농촌으로 둘러싸여 있기에 현재의 상태로 보자면 눈에 띄는 교세의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들 교회는 모두 그 연원이 깊은 만큼 교회에 속한 구성원들의 신심도 깊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조리읍 대원리 756번지에 있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대원교회의 역사는 1901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시골마을이었던 대원리에 이순호가 전도를 시작하여 처음 교회가 설립되었다. 이듬해에 이순호의 전도를 받은 임봉준이 미국 선교사 노해리 목사에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 지역의 첫 신자가 되었고, 이후 교인들이 불어나기 시작하였다. 2년 후인 1904년에는 언더우드의 전도로 신도가 50여 명으로 증가하였고, 임봉준은 첫 집사가 되었다. 1905년에는 죽원1리에 목조 초가 예배당을 건축하여 교회 건물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이때 처음 담임 교역자로 최덕준이 오게 되었다. 1929년에 대한 예수교 장로회 죽원리교회로 정식 등록되었으며, 1933년에는 유치원을 설립하여 40명의 어린이들에게 무료교육의 혜택을 주기도 하였다. 1949년에는 봉일천 초등학교에 다니던 이 교회 소속 주일학교 학생 36명이 우상숭배라고 하여 국기배례를 거부함으로써 퇴학 처분을 받은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이승만 대통령의 주재로 국기배례를 주목으로 바꾸는 국민의례를 결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다시 복교되기도 하였다.

1950년 현 위치로 교회를 옮기고, 1957년 4월에 교회의 명칭을 대원교회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유지해 오고 있다. 그간 대원교회를 바탕으로 새롭게 생겨난 교회는 봉일천 감리교회(1954), 운정교회(1961), 봉일천 장로교회(1970) 등이 있으며, 타 교회의 설립에도 많은 지원을 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는 해외선교를 위한 지원도 시작하여 방글라데시, 볼리비아, 탄자니아, 태국 등의 선교를 후원하고 있으며, 양로원이나 심신박약 시설 등에도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다.

현재 대원교회의 교인 수는 600여 명이고, 8개 구역으로 나뉘어 있으며, 담임 목사와 부목사, 전도사, 그리고 장로들이 교회를 이끌고 있다. 교회 제직회는 당회장인 조귀현 목사를 회장으로 예배위원회, 선교위원회, 교육위원회, 재정위원회, 관리위원회로 조직되어 있으며,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의 주일학교가 있다. 또한 2개의 남전도회, 4개의 여전도회가 교회의 전도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문산읍 문산리 95-39에 위치한 대한 예수교 장로회 문산교회도 역시 1901년에 최덕준에 의해 시작되었다. 1909년에는 문산리 70번지에 건평 40평의 예배당을 건축함으로써 교회 건물을 갖게 되었다. 1968년에는 문산교회 유치원을 교

육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여 유아교육에도 발을 내디뎠다. 1970년 현 위치에 대한 예수교 장로회 경기노회 문산교회로 등기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문산교회는 공동의회, 당회, 제직회, 자치회의 큰 구조로 나뉘어 있으며 경로대학을 부설로 운영하고 있다. 당회는 예배위원회, 교육위원회, 재정위원회, 복지위원회 등 모두 13개의 위원회로 조직되어 있고 제직회에는 재정부, 전도부, 봉사부 등 22개의 부서가 있으며 자치회는 전도회, 친교회, 면려회로 구성되어 있다. 전도회에는 3개의 남전도회, 10개의 여전도회가 소속되어 있다.

금촌2동 334번지에 위치한 대한 예수교 장로회 비저니아교회(구 금촌 장로교회)는 1907년에 시작되었다. 처음 이원궁, 신태영을 중심으로 금촌3리에서 출발한 교회는 1932년 금촌1리로 이전하여 초가 6간 예배당을 건축하였다. 1955년 금촌2리 현 위치로 이전하여 새로운 교회 건물을 건축하였고, 1985년에 같은 자리에 새 건물을 지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비저니아교회의 제직회에는 예배부, 찬양부, 교육부, 선교부 등 15개의 부서가 있으며, 교육위원회, 장학위원회, 인사위원회 등 8개의 각종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다. 또한 주일학교와 4개로 이루어진 남선교회, 8개의 여전도회가 활동하고 있다. 신도 수는 대략 600여 명이며, 각 신도들은 5개 교구와 남성 목장으로 편성되어 있다. 각 교구 아래에는 다시 여러 개의 목장들이 소속되어 있는데, 이러한 교구와 목장이란 조직은 다른 교회의 구역과 반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대한 예수교 장로회 갈현교회는 탄현면 갈현2리 418-5번지에 있다. 갈현교회는 1907년 언더우드가 파송한 최덕준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1953년에 현 위치로 이전해 목조 건물의 예배당을 건축하였다. 1989년에는 장학회를 설립하여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2007년 11월 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갈현교회의 신도 조직은 예배, 교육, 선교 등을 담당하는 제직회와 11개의 각기 다른 목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외에 남녀 선교회 및 장학회 등이 있다.

교회의 활동은 다양하지만, 예배당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교회 활동의 중심은 예배와 기도이다. 파주의 모든 교회는 일요일에 몇 차례의 예배를 행하며, 수요일에는 수요예배를 드린다. 일요일에 하는 예배는 교회의 규모나 사정

에 따라 그 횟수가 다르며, 시간대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 전 신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배의 경우 규모가 작은 교회는 한두 차례의 예배를 보지만, 큰 교회의 경우에는 대여섯 차례의 예배를 행한다. 이외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유치 · 초등부 예배나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중고등부 예배, 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부 예배 등을 별도로 행하고 있다. 교회에 따라 약간의 시간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11시에 하는 예배를 일요예배의 중심적 위치에 놓는다. 따라서 이 시간대에 가장 많은 신도가 참여한다.

갈현교회의 경우 일요일 1부 예배가 오전 9시에 있으며, 2부 예배는 오전 11시에 있다. 2부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 오전 10시 무렵이면 신도들이 교회로 모이기 시작한다. 교회 입구에서는 한복을 차려입은 여성 신도들이 들어오는 신도들에게 주보를 나누어주며 안내를 한다. 11시가 되면 담임 목사의 인도 아래 예배가 시작되며 주보에 안내된 순서에 따라 예배가 진행된다. 찬송과 기도, 성경봉독, 봉헌, 그리고 축도 등이 차례로 진행되며 예배가 끝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대략 1시간 전후에 걸쳐서 진행된다. 수요예배는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있으며, 그 과정은 일요예배와 비슷하지만 보다 간단한 형태로 진행된다. 이외에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한 예배가 별도로 행해진다. 또한 매월 마지막 금요일 오후 9시에는 심야 기도회가 있다. 금요일의 심야 기도회는 교회의 사정에 따라 매주 개최하는 곳도 있고, 갈현교회의 경우처럼 한 달에 한 번꼴로 개최하는 곳도 있다.

파주 지역에는 대략 400개 가까운 교회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50여 개 교회는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사정에 따라 교회의 설립과 폐지 또는 통합이 이루어지곤 한다.

서울 근교 지역에는 많은 기도원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파주 지역에는 다른 지역과 달리 기도원의 숫자가 많지 않다. 기도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소속의 조리읍 오산리의 최자실기도원이라 할 수 있다. 최자실기도원은 그 규모면에서 웬만한 대형 교회를 능가하고 있으며, 수용 인원도 1만여 명에 이를 정도이다. 이 기도원은 금식기도를 통해 영혼과 육신의 구원을 받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부활절이 되면 기도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

파를 초월한 연합예배를 드리고 있다.

파평면 늘노리에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고려) 총회 소속의 고려신학교가 자리하고 있다. 이 신학교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경향교회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는다. 고려신학교 자리에는 신학교와 함께 경향수양관이 자리하고 있다. 이외에 법원읍 웅담리의 서현교회 수양관과 문산교회 수양관, 변화산 기도원 등이 있다.

한편, 파주 지역에는 기독교의 대표적 단체인 파주 YMCA와 파주 YWCA가 활동한다. 파주 YMCA는 2006년 11월에 창립되었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보다는 자리를 잡는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파주 YMCA는 창립 이전부터 청소년 인성교육, 경제교육과 마을학교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고 학교 급식비 지원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2007년 10월 파주시로부터 '교하 청소년 문화의 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파주 YMCA는 다채로운 청소년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점차 그 활동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

파주 YWCA의 역사는 다소 오래되었다. 1990년 창립된 파주 YWCA는 1994년 YWCA회관을 개관하였다. 1996년에는 방과후교실을 열었으며 2000년대 들어서 더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 고장 바로알기, 우리 고장 문화지킴이 등의 어린이 현장체험 학습을 통해 우리 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남학생 성교육캠프나 어린이 성폭력 예방을 위한 탈인형극, 뮤지컬 공연 등의 성 관련 계몽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임산부교실, 무료 직업소개소, 가정폭력 상담소 등 성인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파주에는 YMCA나 YWCA 같은 조직을 통한 사회 프로그램 외에 개교회나 신도 개인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회복지 시설이나 사회복지 사업 등도 있다. 문산4리의 문산 침례교회, 교하읍 와동리의 복된교회, 조리읍 봉일천리의 다사랑교회, 금촌2동의 새힘교회, 금촌2동의 선한교회는 매주 한 차례 이상 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문산 침례교회는 교회에 '초록빛 밥상공동체'를 운영하여 주당 네 차례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원읍 대능3리의 세계로교회는 '푸드뱅크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고, 문산교회도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개신교의 활동들이 모두 살아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파주 지역에는 죽은 이들을 위한 교회 묘지도 10여 곳이 있다. 그렇지만 이들 교회 묘지의 대부분은 서울의 대형 교회에서 운영하는 것들로 파주 지역 교회들과는 무관하다.

파주의 개신교 연합체로는 파주시 기독교연합회, 파주시 기독신우연합회, 파주시 교육자선교회가 있다. 파주시 기독교연합회는 파주 교역자들의 모임이고, 파주시 기독신우연합회는 파주 개신교 신자들의 모임이다. 이러한 모임은 또한 각 읍면별로 별도의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다. 연합회에서는 각 교회와 신도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연합행사를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기독교연합회는 연초에 신년기도회를 열고, 부활절에는 교파를 초월한 연합예배를 행한다. 또한 가을이 되면 '파주시를 위한 연합부흥회'를 개최하기도 한다. 파주의 기독교 인구는 대략 2만 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당이나 용인, 평촌, 일산 등 서울 부근의 새로운 신도시들처럼 파주에는 아직 대형화한 교회가 없다. 그 이유는 아직 도시 개발이 지속되고 있으며, 다른 신도시들에 비해 농촌 지역도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파주에 앞으로 대형 교회가 생겨날 여지는 충분하다. 도시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인구도 꾸준히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파주의 개신교 인구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지 100년을 훌쩍 넘어섰다. 그동안 기독교는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였다. 그것은 파주 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기독교가 파주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높아졌으며, 그에 따른 책임이나 의무 또한 높아졌다. 따라서 교회는 지역사회의 뿌리이며 소금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협력하는 데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